

↑ 코스피 2488.42 (+5.00)	↓ 코스닥 715.45 (-2.32)
↓ 금리 (미국 9년) 2.331 (-0.031)	↓ 환율 (원-달러) 1416.65 (-6.65)



## 토허제가 부른 양극화... 서울 집값 상·하급지로 갈랐다

정부·시 규제 따라 집값도 요동  
서울 내 지역 간 격차만 더 벌어  
송파·강남 '폭등', 노도강 '하락'  
조기대선에 당분간 안정세 전망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구역 지정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상급지'와 '하급지'로 갈라놨다. 이 전까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였다면 토허제는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벌려놓는 계기가 됐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매매값은 4.28% 급등해 전국시·군·구 아파트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평균 상승률(1.0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3.52%씩 올라 송파구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두번째로 높았다.

반면 노원(-0.23%)·도봉(-0.17%)·강북구(-0.11%) 등 '노도강' 지역과 중랑구(-0.12%), 금천구(-0.11%), 동대문구(-0.09%), 구로구(-0.07%), 은평구(-0.05%) 등은 1분기 아파트 매매가 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분위기를 결정 지은 것은 토허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월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2월13일 잠실·삼성·대청·청담동 등을 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5년 가까이 묵은 규제가 풀리자 집을 팔려

는 주인과 대기 수요가 쏠렸다.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집값도 급등한 것.

주간별로 보면 2월 10일 주간부터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토허제 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직전 주간까지 이어졌다. 3월 17일 주간부터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토허제 지정 여부가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서울시는 해제 35일 만인 지난달 19일 기존보다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해 재지정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범위는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전체 아파트까지 넓어졌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허제 언급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제로 인식됐지만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에는 서울 내부에서도 가격 급등 지역과 상대적으로 안정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며,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과 다른 지역의 정체 또는 하락세 간 차이가 부각되며, 토허제 확대 및 재지정이 서울시 내에서도 국지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풍선효과보다는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기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지속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향년 88세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 시간) 오전 88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공무원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페렐 추기경은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덧붙였다. 교황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슬픔과 애도의 물결에 빠졌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은 특별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국내에서도 개신교, 불교 등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평생을 가난한 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교황의 선종을 추모했다. AP/뉴시스

있어 주택 수요의 급격한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침체 여파도 이어지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관세쇼크에 세계경제 제동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고조

미 브루킹스 연구소·FT 공동발표  
타이거지수 2개월 연속 하락  
신뢰·금융지수 일제히 둔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자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파이낸셜타임스(FT)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경제 회복 추적 지수'(타이거 지수)에 따르면 이번 달 전 세계 타이거 지수는 5.950을 기록, 2월 7.710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금융시장 상황 악화와 함께 신뢰도 지수가 급락했음을 보여준다. 타이거 지수는 각종 경제·금융 지표와 신뢰도 지수 등을 종합해 세계 경제 회복을 파악하는 지수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스와르 프라스드 선임연구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도 "세계 무역의 붕괴와 정책 불확실성 증

가가 성장을 크게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에 의존하는 모든 개방 경제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부정적인 신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특히 이번 달 전 세계 신뢰도 지수(기업 신뢰·소비자 신뢰 등 반영)가 -1.044로 3개월 연속 내렸고, 금융 지수(신용 증가·증시 시가총액·주가지수 등 반영)도 2개월 연속 하락한 7.144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중심의 무역 충격으로 경제 신뢰도가 무너지고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투자자 신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우려도 증폭되고 있어 글로벌 자금의 미국 탈출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최규훈 기자 ch9720@

## "코스피 5000 열겠다... 상법개정 재추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  
이재명, 주식시장 구조적 왜곡 지적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 자산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가 일시적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험에 처해 있다"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모여 시장 진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후보는 자산시장의 부동산 쏠림과 주식시장의 구조적 왜곡도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은 배당과 주가 상승이 가능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배당도 부족하고 장기투자도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과 관련해선 "우량주라 생각하고 장기투자했는데 송아지를 낳고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투자자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가지수가 현재 25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코스피 4000~5000을 넘어간다면 국부도, 기업 자산가치도, 주식 보유자의 재산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메트로 한줄뉴스



▲한덕수 대행, 과학계에 "AI 3강 진입, 반드시 실현해야"  
▲이준석, 전장연 시위 재개에 "수십만 일상 볼모 잡을 권리 없어" /사진 뉴시스

▲민주 "홍준표 캠프, 2022년 당원명부 불법 입수·활용해 대구시장 경선 승리"  
▲국민의힘 "중국의 서해 '알박기'는 주권 침탈... 비례 대응해야"

▲민주, 안덕근에 '관세 협상' 대면 보고 받기로... "차기 정부에 넘겨야"  
▲홍준표 "한덕수, 빨리 입당했으면... 반대할 생각 없어"

# 최상목, 스콧베스트 美 재무장관 면담... 관세협상 담판 짓나

## 최 부총리 오늘 워싱턴DC 출국

22일부터 6일간 IMF 춘계연차총회 IMF서 '세계경제전망' 발표 예정 미 재무장관·미 무역대표부 참여 24일 오후 9시 '2+2 통상협약'



정부가 이번주 중 미국 측과 통상 문제 관련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사진은 2+2 통상협약에 참석할 예정인 (왼쪽부터)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스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뉴시스

백악관이 각국을 상대로 불을 지핀 무역 분쟁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진단이 주목받게 됐다. 각국 재무장관이 한데 모이는 IMF 춘계 연차총회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번 주 막을 올린다. 한국시간으로 22~27일 6일간 예정돼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경제·금융 부문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한다. 행사 기간 중 스콧 베스트 미 재무장관의 양자간 면담이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재무장관의 IMF 내 면담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최 부총리는 오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

께 미국을 상대로 관세협상에 나선다. 장소는 백악관이 유력하다.

연차총회 관련 전 세계의 이목은 우선 IMF가 22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이다.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정 예측치도 포함된다. 앞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한 연설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려 잡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폭 하향조정 시사에 대해 진행 중인 관세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

총회에서는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방

침으로 인한 지구촌 파장을 비롯해, 각국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IMF는 ▲미국발 관세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 초래 ▲무역 장벽의 증가로 인한 성장 타격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생산성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대응책으로는 ▲자국 개혁 노력 강화 ▲가격 안정성을 위한 통화정책의 유연·신뢰성 유지 ▲신흥시장의 경우, 충격 흡수를 위한 환율 유연성 확보 ▲부채 해결 노력 등을 제시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 첫 번째 관세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로 잡혔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미 베스트 재무장관·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른바 '2+2 통상협약'을 개최한다. 또 2+2 통상협약에 이어 양국 통상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

칙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국(5개국-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으로 지정한 이른바 '1그룹' 가운데 일본에 이어 2번타자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미 베스트 장관은 한국의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를 대화 상대로 지목했다. 이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조선업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의도를 풀이된다. '패키지 딜' 형태의 합의점을 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미국산소고기 월령별 수입 제한 해제, 환율 문제 등도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尹 측 "의원 끌어내기 가능해 보이냐" 조 단장 "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

##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 '의원 끌어내기' 증언 두고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렸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대통령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성현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는 질문을 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리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해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그러나 조 단장은 부하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관련 증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거듭해서다. 조 단장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자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은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해,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 /서예진 기자 syj@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국익 최우선, 양국 윈-윈 방안에 총력"

韓 권한대행, 경제안보전략 TF회의 '美 요청, 양국 경제·통상장관 협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주 양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협약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다.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합동 대표단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스콧 베스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장관 간 개별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합동 대표단의 공동 수석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서예진 기자 syj@

# "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종목 청산해야"

## >> 1면 '코스피 5000...'서 계속

이어 "이를 위해선 조작이 불가능하고 공시가 투명하며, 규칙이 지켜지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

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실 상장 종목 문제도 지적하며 "(주식)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다. 이는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가 있지 않나"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종목은 빨리 청산하는 게 맞다"며 시장 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PBR만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끌어올려도 코스피 4000, 5000은 가능하다"고 덧붙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미래세대 부담 덜겠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공약 봇물

## 6·3 조기대선

주요 후보, 청년층 표심잡기 나서  
자동조정장치·정년연장 등 제시  
“차기 정부, 구조개혁 본격화 전망”

오는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개혁이 청년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아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주요 화두다. 각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A조 토론회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맞붙었고, 20일 B조 토론회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해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과 공약을 제시했다.

A조의 조별 토론 주제로는 ‘청년 미래’가 제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해지면서 중도층 확보가 여당 측 후보의 최우선 목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2030세대는 대표적인 ‘스윙보터(선거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로 꼽힌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홍준표(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 유정복, 이철우,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경선 후보가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조별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논의를 주고받은 키워드는 ‘연금 개혁’이었다. 앞서 여·야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연금개혁안은 기성세대 부양을 위해 청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 연금개혁 논의에도 세대별 인구에 맞춰 청년들을 충분히 참가시켜,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고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기 위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졸속 처리 법안”이라며 “연금 문제의 핵심은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인 만큼,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두 개의 부서로 나눠 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을 하나의 부서로 합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새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서 내에 청년부를 신설해 (연금 문제를 비롯한) 청년 문제를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뉴시스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B조 후보들 사이에서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이 나왔다. 나경원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금과 청년이 내는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추진단의 출범과 더불어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여당 바깥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과락을 간신히 면할 60점’이라고 평가했던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최근 청년 지지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이라며 “이번 연금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연금 자동조정장치, 신연금제도 도입 등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여당과 비슷하거나 더 개혁적인 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권창출에 성공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한화에너지 등 3社 참여... ‘승계’ 논란 해소 기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3자 배정 통해 1.3조... 사용계획 보충  
“정밀 심사시 6~7월까지 결릴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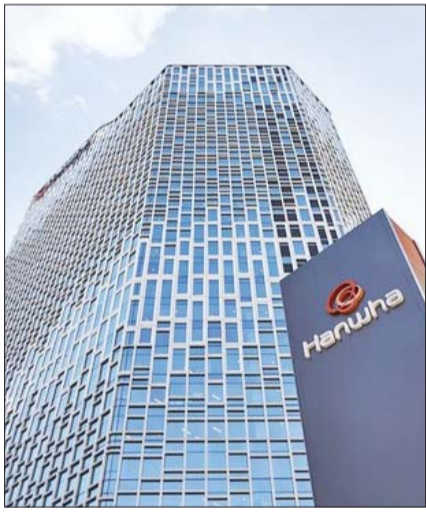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유상증자 통과를 위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심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승계자금’ 논란은 여전히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글로벌시장 확장이란 당면 목표를 향해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심사에서 통과할 경우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상 자금 사용계획이 불분명하고,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된 시장의 의혹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해당 신고서를 두번째 반려했다.

이에 한화에어로는 자료를 보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승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어로는 유상증자를 밀어 붙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급성장중인 방위산업분야에서 글로벌 확장을 하는데 투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유럽연합(EU)의 재무장으로 방산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당분간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 무기 체계 사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격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경쟁력과 품질 성능을 갖춘 국내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방산 업체들이 향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규모는 최대 849억유로(약 1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이 오는 2040년 5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해 유상증자 자금 중 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유증 증권신고서 제출에서 금감원이 심사 통과를 결정하게 될 경우 ‘승계자금’ 논란도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포르 등 3개사가 1조 3000억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화오션 지분 매각대금으로 한화에어로가 지급한 1조3000억원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만큼 금감원의 반려 이유 중 하나인 ‘한화오션 지분매매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 기재 미흡’이 해소된다. 금감원의 심사 결정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심사 통과는 ‘승계자금’ 논란 종식을 뒷받침 하게 되는 것이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교수는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승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승계자금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금감원의 승인 자체가 일정 수준의 요건과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승계자금 논란이 약화되거나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금감원이 앞선 두 차례 신청을 반려한 바 있어 이번 세 번째 신청은 이전보다 더욱 정제된 자료와 구조를 기반으로 제출 했을 것”이라며 “반약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 없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5월 중 승인도 가능하고 정밀 심사가 요구된다면 6~7월 정도까지 결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에어로는 주가는 유증 신고서가 반려된 지난 17일부터 연사흘째 증가기준 최고치를 경신, 이날에는 전날보다 0.24% 오른 83만원에 장을 마쳤다. 일각의 승계자금 논란에도 시장의 시선은 사상최대규모 유증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2대 주주 지분매각 조건 ‘도마위’ “경영권 지킬 것” vs “믿을 수 없어”

###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

사측, 경영권 관련 조항 목록부담  
노조측, 지분매각 반대 투쟁 지속

카카오모빌리티 2대 주주 지분의 향방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사모펀드에 회사 지배권을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지분 매각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2대 주주의 지분 매각 조건에 카카오가 경영권을 내주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다.

2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2대 주주의 지분 매각 조건에 추후 카카오가 경영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넘기는 조항이 포함됐는지도다.

카카오모빌리티의 202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지분율은 카카오가 57.2%로 가장 높다. 이어 카키홀딩스 14.29%, 킬로미터홀딩스 6.17%, 모빌리티코인베스트 5.34%, 모빌리티홀딩스 3.4% 순이다. 이들 모두 TPG컨소시엄 소속 펀드로 2대 주주인 사모펀드 TPG의 합산 지분율은 29.2%에 달한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회장은 “TPG가 가진 지분을 사고파는 건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면서 “다만 TPG 지분을 VIG가 사들이는 거래 조건

###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현황>

주주명	지분율
카카오	57.2%
카키홀딩스	14.29%
킬로미터홀딩스	6.17%
모빌리티코인베스트	5.34%
모빌리티홀딩스	3.4%
엘지	2.46%
구글	4.52%
기타	9.62%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카카오모빌리티

에 3년 내 카카오모빌리티가 IPO(기업공개)를 못 하면 카카오에서 경영권을 넘겨줄 만큼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대 주주인 TPG가 지분 매수 의사가 있는 VIG와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카카오에서 말하기를 ‘경영권까지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보를 근거로 사모펀드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회사 측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IPO 실패시 카카오가 경영권을 내주는 게 거래 조건에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카카오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조주완 LG전자 사장, 글로벌 경영 강화... B2B 사업 가속화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법인 방문 B2B 중장기 파트너십 유지 주력 국가 정책에 따라 맞춤 대응 방침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주완 사장은 최근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LG전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법인을 찾았다. 올해 초 인도 방문에 이어 3개월 만에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대표되는 신흥시장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해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이 속해 있다.

앞서 조 사장은 지난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진 시장 이외에도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발굴해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사장은 이번 출장에서 냉난방공조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을 찾은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링크드인 캡

(HVAC), 상업용 디스플레이,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등 주요 B2B 사업 중요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2B 사업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솔루션과 B2B 고객과의 중장기적 파트너십 유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부한 노동인구를 가진 글로벌 사우스에 해외 주요 기업들이 몰리게 되면, LG전자가 육성 중인 냉난방공조, 스마트팩토리 등의 B2B 사업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조 사장의 구상이다.

실제 LG전자는 최근 전 세계 냉난방 공조 업계 1위 기업인 일본 다이킨을 제치고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의 공급계약을 따냈다. LG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싱가포르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응해 현지 맞춤형 공조 사업 기회를 적극 확

보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거점 역할을 하는 'LG HVAC 아카데미'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 아카데미를 확대 이전하며 연간 HVAC 엔지니어 1700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중국 선전에 아카데미를 신규 설립했다.

이미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에 나서 냉난방공조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LG전자는 글로벌 사우스 대표 지역이자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기존 노이다, 푸네 등에 이어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 '생활 가전의 종합 생산기지'로 인도 3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공장은 다음달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인도 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전한다

이와사키그룹에 일렉시티 타운 전달 "환경·기술·사회 공존 모델 보여줄 것"

현대자동차가 '바다 위의 알프스'로 불리는 일본 야쿠시마에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모델을 구축해 '무공해 섬 전환'에 힘을 보탠다.

현대차는 21일 야쿠시마 이와사키호텔에서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와사키그룹이 운영하는 타네가시마·야쿠시마 교통 주식회사에 무공해 전기 버스인 '일렉시티 타운' 5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7월 가고시마 현을 중심으로 운수·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공급 소식을 전하며 일본 상용 전동화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장재훈 부회장은



21일 야쿠시마 이와사키호텔에서 진행된 '일렉시티 타운 전달식'에서 현대차 최남일 상무(왼쪽부터), 현대차 일본법인 시메기 토시유키 법인장, 현대차 박상현 부사장, 현대차 정유석 부사장,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이와사키그룹 이와사키 요시타로 대표이사 사장, 이와사키그룹 이와사키 카미즈 총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야쿠시마 같은 특별한 환경이야말로 모빌리티 솔루션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며 "환경과 기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사키 요시타

로 사장은 "일렉시티 타운을 지역 교통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아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양립을 실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야쿠시마는 일본 열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제주도의 약 4분의 1 크기다.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자랑해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지로서 손꼽힌다. 섬이 속한 가고시마현은 야쿠시마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렉시티 타운 공급이 야쿠시마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고 '환경과 기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현대차는 전날(20일) 야쿠시마와 일렉시티 타운의 V2H 기능 활용 관련, 야쿠시마의 전기차 활용을 위한 포괄적 연계협정도 체결했다. 일렉시티 타운은 현지 상황에 맞춰 특화 개발한 9m급 전장의 중형 저상 전기버스로 145 kWh 용량의 배터리와 최고출력 160kW를 발휘하는 고효율 모터를 탑재했다. 산악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VDC)를 기본 장착하고, 고효율 배터리 관리 기술과 냉각 시스템으로 충전 효율과 주행 거리를 최적화한 게 특징이다.

차량은 6월부터 야쿠시마 공항과 미야노우라항구, 시라타니운스이교협곡 등을 잇는 타네가시마 야쿠시마 노선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기자간담회

### "2차전지·수소 분야 물류 강화... 글로벌 진출 속도"

IPO 통해 종합 물류기업 도약 "최고의 성장주로 자리매김 할 것"

롯데그룹의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사명에 걸맞게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한다.

'주7일 배송'과 버금가는 '약속배송'을 현재 28개사에서 2027년까지 178개사까지 늘린다. 특히 내년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77개사까지 늘릴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사업 확장과 맞물려 2차전지, 수소 분야 물류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현재 미국, 베트남, 헝가리 등 11개국

에 두고 있는 해외거점도 멕시코, 인도, 이집트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더욱 가속도를 낸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내달 유가증권 상장을 앞두고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후 사업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병구 대표는 "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사업 구조와 국내외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상장 이후에도 차별화한 고객 서비스와 특화 물류 역량을 강화해 자본시장에서 최고의 성장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공모주식수는 총 1494만4322주다. 공모 희망가는 1만 15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총 2017억원이다. 회사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3조5733억원의 매출과 90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창사 이후 최고치다.

강 대표는 "회사는 현재 그룹사 매출이 전체의 약 30%(2024년 기준 34.7%)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이다. 우리는 3PL(3차 물류)을 지향하는 종합 물류기업이다. 그룹사 매출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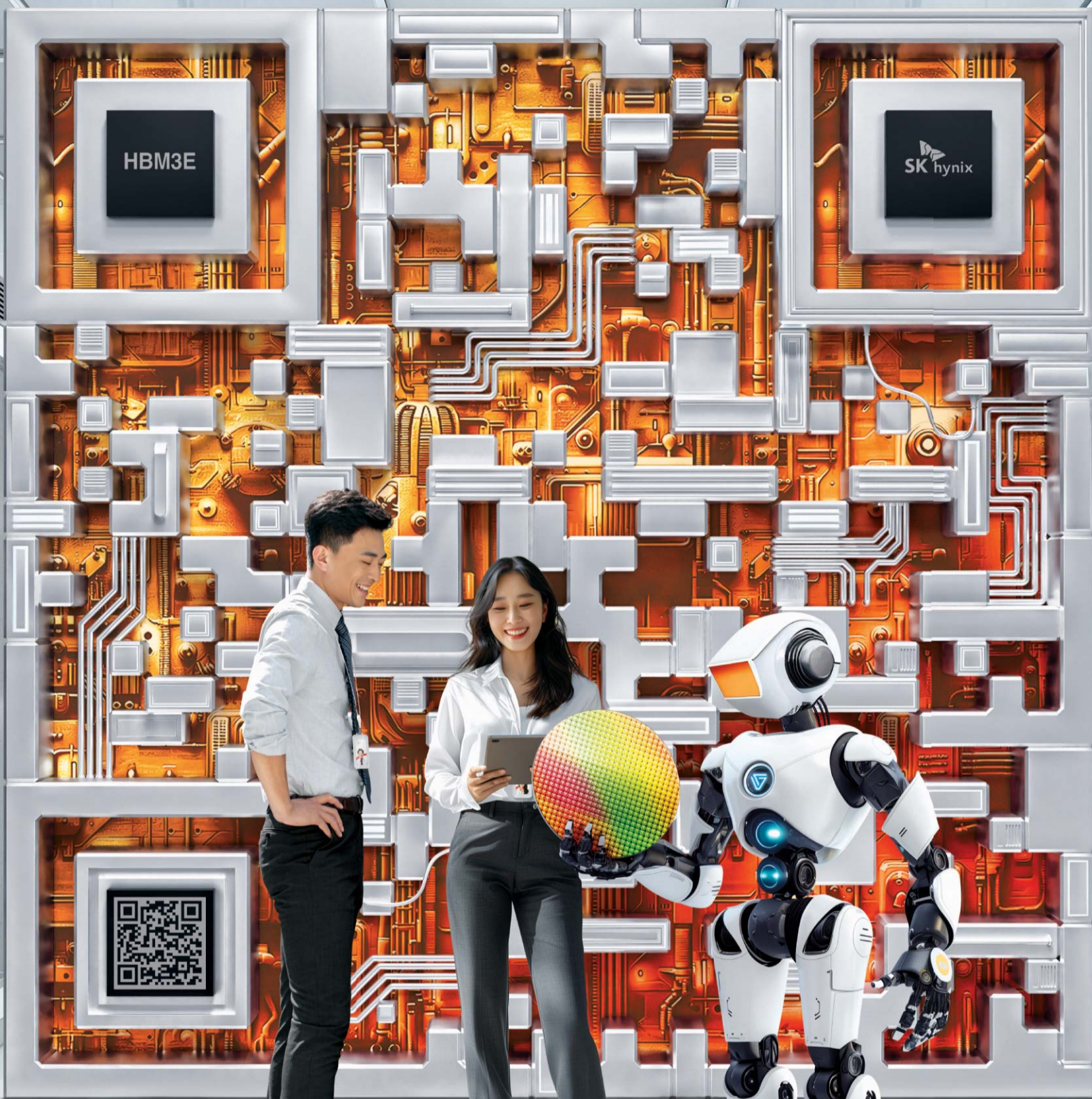
40% 이내에서 관리되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비그룹사 비중을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의 수소(암모니아), 2차전지 관련 사업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2차전지는 원자재 운송, 완제품 배송,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등 전체 밸류체인을 담당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하루 최대 310만 박스까지 가능한 물류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흡소핑, T커머스 시장도 공략해 나갈 것"이라며 "급성장하고 있는 CBE(국가간 전자상거래), 특히 중국 C커머스에 적극 대응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정년연장 문제 피할 수 없고, 청년의 기회 빼앗아선 안 돼”

## 민주당 정년연장TF 토론회

‘일자리 감소 우려’ 청년 목소리 들어 정치권 “은퇴 이후 소득공백 메워야”  
경영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모든 세대 공존할 수 있어야”



민주당 정년연장TF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토론회를 열었다. 정년연장TF는 출범식 후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태홍 기자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맞추는 ‘정년 연장’ 문제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21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정년 연장으로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드러내며 정치권에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토론회를 열었다. 정년연장TF는 출범식 후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지난 2017년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정치권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각 당의 안을 준비 중이다.

경영계 입장에서 정년연장의 문제점을 발제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적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령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편중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고용 비용이 늘고 인사 적체가 심해지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임 본부장은 정년 연장보다,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기업이 재고용하는 방식의 고용 정책을 활용해야 직무와 성과

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 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도 유연하게 다시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국가가 정년연령과 연금 개시연령을 일치시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정년제도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경영계가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0인 이상 기업 95%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고령자의 퇴직연령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

고용 방식은 계약직, 축적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고용불안정을 유발한다고 했다. 정년 도달자와 청년 취업자는 숙련과 경험 차이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청년들은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고 공존할 수 있는 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청년은 “일본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가 얼추 일치한다. 한국은 소득 공백기가 5년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년이 늘어나면 연공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돈만 많이

받는 인력이 늘어 기업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세라 청년은 “고령자 임금은 실제 임무와 역할에 맞게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를 함께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혁 청년은 “청년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근속 연장이 아니라 커리어의 시작점이 밀리고 일자리의 문이 좁아지는 문제로 직결된다”며 “기업들은 실제로 정년 60세 유지 후 필요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단순 비용을 넘어서 연공서열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대·역할 전환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 쿼터제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든지, 정년 연장신규채용 의무화를 마련하든지, 이를 시행한 기업에 세제 감면, 채용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TF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제도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만들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국민의힘, 1차 경선 ‘100% 여론조사’ 실시

오늘 2차 경선진출자 4명 발표  
안철수-나경원, 거친 언사 오가  
홍준표, 한동훈에 원색적 질문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추리기 위한 ‘100% 국민여론조사’를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가운데, 후보 간 신경전이 오가는 등 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22일까지 총 5개 여론조사 기관이 총 4000명의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종료 후 득표율이나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22일 오후 7시경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며, 다른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실시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철수·나경원 후보 중 2차 경선에 진출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안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면, 탄핵 반대파 2명(김문수·홍준표 후보)과 탄핵 찬성파(한동훈·안철수 후보)가 각 2명씩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면 탄핵 반대파가 3명으로 한 후보가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안철수·나경원 후보는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대선 경선 후보자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열고 “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우리 당 대선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다. 어제(20일) 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다”라며 “마치 ‘당 대표 경선토론회’라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경원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도 같은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에 대해 “급하진 것 같다. 제가 드릴 말씀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균등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날 대선 경선 B조 토론회에

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구두를 신나”, “생머리나, 보정숙을 입었냐”는 이 질문도 유지해서 안 하겠다”라고 원색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친한(친한동훈)계는 반박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창피하고 화가 난다.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 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라며 “정치선 배라면서 술자리 뒷담화에서나 끼적거리며 할 농담을 우리당 경선토론회에서 거리낌 없이 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며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해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율 첫 ‘50%대’ 기록

3차 가상대결서도 ‘더블스코어’ 격차  
정권 심판론, 8주째 오차범위 밖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에 올라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정권 심판론 역시 8주 연속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최근 실시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리얼미터 기준)에서 지지도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2.2%, 한동훈 후보 8.5%, 홍준표 후보 7.5%, 나경원 후보 4.0%, 안철수 후보 3.7%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5%, 민주당의 경선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각각 2.0%, 1.8%였다.

이번주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외됐는데, 해당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고루 나눠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민주당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 이재명 후보 53.4%,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등의 순이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 김동연 후보 5.5%, 김경수 3.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문수 후보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

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범보수 주자들과의 3차 가상대결에서도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54% 정도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후보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3차 가상대결을 벌일 경우 54.2%, 23.6%, 6.1%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11.7%, 잘 모름은 4.4%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3차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54.6%, 20.5%,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8주째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9.9%가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은 34.3%이며 5.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1.2%포인트 상승했고, 연장론은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4주 차 이후 8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론을 앞지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284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6.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800만 외국인 잡아라”... 은행권, 전용상품·앱 특화 경쟁

국내은행 외국인 고객 수 813만명  
채류 외국인 늘면서 금융거래도 ↑  
비대면 계좌개설, 전용지점 개설 등  
4대 은행 ‘외국인 맞춤 전략’ 속도  
지방은행, 다문화직원 배치로 가세

주요 은행이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가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금융권의 주요 고객 층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금융 편의 지원에 나섰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이다. 기존 최고치인 2019년의 252만명보다 13만명 늘었다. 전체 인구(5122만명)의 5.17%에 해당한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자의 비중은 77%에 달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의 비중도 65.6%를 기록했다.

경제 활동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금융거래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BNK경남은행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에서 다문화 가정 직원이 외국인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의 외국인 고객은 전년 대비 37만명(4.8%) 늘어난 813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 국내 거주 외국인 265만명

외국인 고객은 내국인 고객보다 환전, 해외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이 잦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익 감소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외국인 고객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외국인 고객의 이용이 잦았던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특

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외국인 고객 추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는 600만명이다. 은행권 전체 외국인 고객의 약 75%다.

KB국민은행은 외국인 고객 전용 입출금계좌인 'KB 웰컴 계좌'를 출시해 입·출금 수수료 면제, 환전 우대를 제공 중이다. 오는 30일에는 외국인 고객 전용으로 수수료를 낮춘 해외 송금 서비스 'KB 퀵센드'도 오픈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국인 고객을 대

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과 체크 카드 발급이 가능한 'SOL 글로벌 체크카드'를 출시했고,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에 외국인 특화 지점을 오픈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주민이 7.1%에 달하는 평택시에 외국인 전용 지점을 개설하고 38개 언어를 대상으로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외 송금에 특화된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하나 E Z'도 출시해 운영 중이며, 외국인 특화 상품도 개발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외국인 고객용 앱인 '우리WON글로벌'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강의를 오픈했고,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내 부동산 정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 ◆ 지방은행도 '특화 브랜드'

지방은행도 외국인 고객 확보에 힘쓴다. 우즈베크, 몽골 등 중앙아시아 고객의 이용이 많은 전북은행은 외국인 특화 브랜드 '브라보 코리아'를 출범해 알뜰폰 비교, 의료 정보 제공 등 각종 생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경남은행도 일부 지점에 다문화 직원을 배치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대학을 방문해 유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고객 유체에 힘쓰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계좌개설을 포함한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금감도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 서류 번역본 제공, 외국인 앱 확대, 특화 점포 안내 강화 등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금융 거래도 용이해지면서 외국인 고객이 은행권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내국인 인구 감소 전망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은행권의 외국인 유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삼성물산, 1.2조 규모 장위8 공공재개발 수주

새 단지명 '래미안 트리젠트' 제안  
21개동, 2801가구·복지시설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자인 서울성북구 장위8구역에 수주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는 지난 19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12만1634㎡ 부지에 지하3층~지상46층 규모의 총 21개동, 2801가구와 부대복지시설 등을 조성하



장위8 공공재개발 조감도. /삼성물산

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 1945억원 규모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은 GTX-C예정 노선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이내

에 위치해 있다.

장곡초와 장위초, 광운중, 남대문중 등 학교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에 우이천이 흐르고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퐁의숲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트리젠트(RAEMIAN TRIZENT)'를 제안했다. 삼위일체(Trinity)와 독일어 중심(ZENTRUM)의 결합이다. 장위 최고층 3개의 랜드마크동과 문화·자연·커뮤니티가 어우러진 주거 명작을 선보여 장위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안상미 기자 smahnl@

## 지난해 한은 금융망 원화 결제액 617조

증권거래자금 결제액 18.6% 늘어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결제한 금액이 6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늘면서 금융공동망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1일 '2024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한은 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 결제금액이 617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원화자금은 지난 ▲2022년 524조3000억원 ▲2023년 554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수는 은행 52개, 비은행 84개로 총 136개다.

자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증권거래자

금 결제금액은 357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6% 늘었다. 참가기관간 차액결제자금은 28조4000억원으로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같은기간 5.4% 증가했다.

시스템별로 보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4405만건,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6.4% 증가했다.

특히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결제 규모는 97조9710억원으로 11.2% 늘었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공동망을 이용한 금액이 19%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에서는 지난해 328조8000억원이 결제됐다. 1년 전과 비교해 21.4% 증가한 규모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김태한 경남은행장, 청년 직원들과 기업문화 혁신 논의

2025 에스리더 임명식 개최  
은행 발전 방향·추진 목표 논의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이 추진 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 등 목표를 위해 청년 세대 직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BNK경남은행은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이 '2025년 BNK YES! LEADER(에스 리더)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임명된 에스 리더들과 은행의 발전 방향과 추진 목표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매년 전(全)사에서 젊고 활동적인 직원들을 모집해 'BNK YES! LEADER'로 임명하고, 창의적인 실행 과제 발굴을 비롯해 은행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제도 개선,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사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앞줄 가운데)과 새롭게 임명된 경남은행 'BNK YES! LEADER(에스 리더)'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회적 책임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BNK YES! LEADER'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남은행만의 경쟁력 발굴, 업무 방식의 변화 및 혁신,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달 초 BNK경남은행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김태한 은행장은 이날 새롭게 임명된 에스 리더들에게 임명장과 특별 선물을 수여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은행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직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

하나은행, 1차 대비 가입요건 완화  
경기민원24서 가입대상 확인 필요

하나은행이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를 실시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2차로 공급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은 1차 공급 대비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25~34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만 25세부터 39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거주 요건 또한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로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25~39세 청년이며,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존 대출(통장대출 포함)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원 신청과 가입 대상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My 브랜치'를 통해 비대면 신청하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 현대차-포스코, 미래 신사업 맞손... 2차전지·철강 등 협력

양사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공고히 할 것”

포스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핵심 동력인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철강 및 2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사장)과 한석원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본부장(부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글로벌 주요 시장 및 미래 신사업



2025년 04월 21일 (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본부장 한석원 부사장(왼쪽)과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 이주태 사장이 21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코그룹은 북미 철강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과 함께 모빌리티용 고품질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총 58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는 전기로 제철소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로는 쇠물 생산을 기존의 고로가 아닌 고온의 전기 아크를 통해 용해해 만드는 시스템

으로, 현대제철은 2029년부터 이 공장에서 270만톤 규모의 열연·냉연 강관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 및 기아 조지아 공장을 비롯해 미국 등의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고품질 자동차 강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포스코그룹은 북미 철강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포스코는 멕시코에 자동차강관 공장을 비롯해 북미 지역에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해외 연호 및 광산에 대한 소유권·지분 투자 등을 통해 리튬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의 사업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및 양·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이후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소재 개발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도 함께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포스코그룹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전동화 리더십 확보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글로벌 통상압박과 산업 패러다임 대변화 속에서 양사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등 그룹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차·기아, ‘레드 닷 어워드’ 7관왕

EV3, 제품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 “차별화 모빌리티 경험 제공할 것”

현대자동차·기아가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영감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현대차·기아는 21일 ‘2025 레드 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6개 등 7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뉘어 우수 디자인을 선정한다.

기아 EV3는 이번에 발표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대차 아이오닉9와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스마트 택시 표시등,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이피트(E-pit) 초고속 충전기,



2025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EV3’

픽셀 비상 방지 엔 커터 등 6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기아는 올해 EV3 외에도 2022년 EV6, 2024년 EV9으로 동일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본상을 받은 현대차의 스마트 택시 표시등은 기존 택시 표시등과 운행 상태 표시등을 하나로 통합해 루프 중앙이 아닌 B필러 위쪽의 루프 몰딩에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의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는 직관적 기능을 담은 간소한 디자인으로, 픽셀 비상 방지 엔 커터는 네 개의 픽셀이 조합된 디자인이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기아의 디자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영감이 응집된 결과”라며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텀블러 세척기’ 신시장 개척

마이컵 출시... B2B 사업 영역 확장

LG전자는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MyCup)’을 출시하고 B2B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이컵은 카페, 사무실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간편하고 깨끗하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해주는 제품이다.

마이컵은 360°로 회전하는 세척날개와 65°C 고압수로 텀블러 내·외부 및 뚜껑을 동시에 세척할 수 있다. 글로벌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 실험 결과 표준 코스 진행 후 대장균, 리스테리아,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 3종이 99.999%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폭은 23cm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어 뛰어난 공간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B2B 구독 서비스와 3개월마다 전문 케어 매니저를 통해 제품을 관리하는 전용 관리 앱도 함께 선보였다. 마이컵의 3년 구독 계약 기준 월 구독료는 9만 1900원이다.

LG전자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손잡



LG전자 모델이 마이컵으로 텀블러를 세척하는 모습.

고 연내 전국 2000여 개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마이컵을 순차 설치할 예정이다. 또 최근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일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실현을 위한 대화용 컵 사용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향은 LG전자 HSCX 담당은 “식기 세척기로 쌓아온 세척·건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마이컵으로 텀블러 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B2B 신사업을 통해 구독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미라클래스’ 국내 공급

LG전자가 차세대 상영관용 시네마 LED ‘LG 미라클래스’를 통해 차원이 다른 영화 관람경험을 선사하며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LG전자는 메가박스와 협업해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차세대 상영관용 시네마 LED ‘LG 미라클래스’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2개 상영관에 LG 미라클래스를 설치해 ‘메가 LED’ 특별한 운영을 시작했고, 이달 말까지 총 3개로 늘린다. 서울 광진구에 문을 여는 메가박스 구의 이스트폴점 등에도 LG 미라클래스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오승진 MS마케팅담당은 “LG 미라클래스를 통해 경이로운 관람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에어컨 등 구독케어 사업 강화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

삼성전자가 고객 사용 편의성과 프리미엄 가치 확대를 위한 서비스 차별화 전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1일 구독 중인 가전제품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 시 고객에게 전화로 안내하고 방문 수리 접수까지 해주는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로 가전 구독 케어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 사전 케어 알림’은 AI가 원격진단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전제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발송한 후 진단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원격진단 시스템은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제품에만 가동된다.

삼성전자서비스 전문 상담사가 진행

하는 ‘AI 사전 케어 알림’은 AI 진단 내용 설명, 기기 상태 확인, 방문 수리 예약까지 지원해 준다. 시간이 부족한 고객은 번거롭게 직접 AS를 접수할 필요가 없어 더욱 유용하다. 또 제품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AI 사전 케어 알림’은 구독 대상 제품 중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로봇청소기, 에어드레서 등 10개 품목에 도입됐다. 에어컨 냉매 부족 이상, 냉장실 이상 고온 감지, 세탁기 통신 모듈 점검 등 24개의 다양한 증상을 진단할 수 있다.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는 구독 케어 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으로 별도 요금 없이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 두산퓨얼셀, ‘에너지자원 유연화’ 기술 고도화

남부발전-두산에너지빌리티 업무협약

두산퓨얼셀은 세종시에 위치한 신세종빛드림본부에서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에너지자원 유연화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세종빛드림본부 열병합발전소에 두산퓨얼셀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보유한 기술 및 제품을 접목해 발전소 종합효율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6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세종빛드림본부 열병합발전소는 액

화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하여 전기 630MW(가스터빈 420MW, 증기터빈 210MW), 열 340Gcal/h를 생산할 수 있으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증기터빈을 공급한 바 있다.

3사는 기술협약을 통해 최대 4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최적의 종합효율을 낼 수 있는 열병합발전(열·전력 병행) 개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자동발전제어(AGC) 운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등으로 향후 열병합발전소에 해당 기술을 접목한 사업모델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美, 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K-석화, 틈새 수출로 '반사이익'

중국 선박의 수출입비용 높아져  
국내 기업서 공급우위 선점 여지  
美 석화 제품값 30% 인상 전망도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이어 석화업계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제품의 수출 비용 급증으로 미국 진출이 제한될 경우 대체 공급처로 국내산 제품이 현지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 중국 국적 선사 또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 운수 1톤당 18달러(약 2만5000원), 컨테이너선의 경우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약 120달러(약 17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해당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28년부터는 수수료가 250달러(약 35만 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에 선박 운송을 기반으로 하는 석화 제품의 글로벌 유통 구조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 디젤, LPG 등 석유제품은 주로 탱커나 LPG선을 통해 수출되며 석화 제품 중 에틸렌은 기체 또는 압축액화 형태로 LPG·LNG 선박 개조 선박을 이용해 운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석화 제품 운송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중국산 선박 이용에 따른 수출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SK이노베이션

약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여건이 유리한 국내 석화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석화 제품 전체 수출물량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인 43억달러 규모로 중국(36.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운송 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부과 방안이 오히려 미국 석화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석화제품 운송수 대서양 횡단이나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해 글로벌 해운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해운사 상당수가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의 LPG를 선적한 V LGC 총 293척 중 19%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은 이번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로 인해 미

국 석화제품 수출 가격이 평균 30% 가량 인상될 수 있으며 특히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단거리 항로의 경우 운송비가 최대 7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 전반기 국내 석화기업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시로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주력 제품인 NB 라텍스는 주로 고무장갑 제조에 사용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산 고무장갑의 점유율이 높았다. 하지만 관세 정책으로 금호석화가 원료를 제공하는 동남아시아산 고무장갑의 미국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업계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며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흔들릴 경우 일부 품목에서는 국내 기업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LGD, 화상회의 번역 '어시스턴트 서비스'

LG AI연구원-LG CNS 협업

LG디스플레이가 개인 업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자체 개발 AI(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자체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기능을 대거 도입했으며 LG AI연구원과 LG CNS와의 협업으로 안정성과 기술성을 높였다.

LG디스플레이가 선보인 AI 어시스턴트는 '화상회의 자동 통번역'과 'AI 회의록 자동 작성' 등을 지원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일평균 업무 생산성을 이전 대비 약 10% 향상시킨다. 임직원은 하루 표준 근무시간 8시간 중 약 50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여 3년 내 업무 생산성을 30% 이상 높여간다는 방침이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자동 통번역 기능을 이용해 유럽 및 베트남 법인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다. 상반기에는 '이메일 AI 요약', 자연어 기반 지표 분석 등의 '데이터 처리 기능'을 추가한다. 하반기에는 보고용 PPT 초안까지 작성해 주는 '문서 작성 어시스턴트 기능' 등 보다 고난이도의 AI 업무로 확장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AI 두뇌역할을 하는 LLM(대형언어모델)은 LG AI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엑사원(EXAONE) 3.5'를 활용했다. /양성운 기자 ysw@

## HS효성첨단, 친환경 탄소섬유 중합 성공

美 투자 스타트업 '트릴리엄사'  
기존대비 약 25% 탄소발자국 감축

HS효성첨단소재가 지구의 날을 앞두고 친환경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22년부터 투자한 미국의 화학 기술 스타트업 트릴리엄사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ACN)을 100% 바이오 기반 우주항공 등급 폴리 아크릴로니트릴(PAN)로 중합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기존 석유계 프로필렌 원료가 아닌 트릴리엄사의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로 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식물 기반 원료로 우주

항공 등급 등의 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되면 기존 프로필렌 탄소섬유 대비 약 15~25%의 탄소 발자국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부 산출 결과 예측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바이오 기반 고성능 탄소섬유는 자동차, 항공,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어 HS효성첨단소재의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하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HS효성첨단소재는 100% 바이오 기반 탄소섬유 상용화를 넘어, 당사가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 전반을 친환경·바이오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친환경 첨단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한국남동발전 등 43곳 동반성장 '최우수'

중기부, 134개 공공기관 평가  
중부발전, 5년연속 '최우수' 받아  
석탄공사 등 18곳은 '개선필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43개 기관이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등 18개 기관은 최하위인 '개선 필요' 등급에 머물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해 절대 평가 방식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 결과 최우수 43곳, 우수 30곳, 양호 29곳, 보통 14곳, 개선 필요 18곳으로 각각 나타

났다.

한국중부발전은 5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다. 4년 연속 최우수 등급도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0곳에 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73곳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33개 기관은 등급이 상승했고 19개 기관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8개 기관은 평가 참여 이후 최우수 등급에 처음 진입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최우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수를 각각 받았다.

최우수 등급 기관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소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응이손 발전소 등 해외 발전소에 발전소 기자재 등 중소기업 제품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또 17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해외 바이

어와의 수출 상담회(1·11월)를 개최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과 제주에 '나라ON 시니어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시니어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 상생형 고용 모델을 구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항만 물류 분야 기술 실증 공간으로 조성해 해상 네비게이션 앱 및 여객터미널 스마트조명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등 항만 물류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기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탈석탄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아울러 에너지 혁신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4월)를 여는 등 중소기업의 미래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소진공, 전통시장·소상공인 판로확대 지원

상인·수퍼연합회와 업무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8일 대전본부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통시장·중소물류 우수상품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우수상품 발굴 및 홍보 ▲우수상품 판로 확대 ▲공동도매물류센터·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우수상품 개발·홍보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구축 예정인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공동구매를 확산해 전통시장 상품은 동네수퍼로, 동네수퍼 상품은 전통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판로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전상연은 17개 시·도지회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우수상품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품질기준 마련해 공동물



(왼쪽부터)이충환 상인연합회장,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송유경 수퍼연합회장이 지난 18일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류 참여 독려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퍼연은 지역별 협동조합을 통해 전통시장 우수상품의 검증 및 유통 기획, 공동 물류 등을 지원한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과 동네수퍼가 상생하며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판로 확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동네수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백인남성’ 자아 답습한 AI?… IT업계, 편향성 개선 주력

훈련 데이터 속 사회적 편견 학습  
불평등 심화·결과물 품질 영향

카카오, 리스크 관리체계 ASI 구축  
네이버, 잠재적 위험 인식·평가·관리  
NIA-TTA, 유해표현 데이터 공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으로 화제를 모은 챗GPT 등 생성형 AI는 성별이나 인종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대부분 ‘백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이는 반복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AI 모델들이 훈련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을 학습해 성별, 인종,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재생산하는 구조 때문이다.

21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AI 모델의 차별, 혐오표현, 편향성 등이 여전히 문제시 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AI 모델의 편향성은 훈련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 성별, 인종,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학습, 재생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데이터의 불균형과 알고리즘 설계자의 무의식적 편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거의 모든 AI 모델은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없는 명령어를 제시해도 항상 ‘백인·남성’을 그린다. /캡처

AI 모델의 편향성은 생성형 AI 대중화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중국 난징항공우주대 천지성 연구원은 AI 채용 시스템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비백인 남성에 불리한 차별적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는 “AI의 편향은 데이터셋과 알고리즘 설계자의 편견에서 비롯되며, 기존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단일 인종·성

별 중심의 학습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 해석 등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편향으로 인한 각종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AI 모델이 생성하는 결과물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AI 기술 개발

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인 ‘카카오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카카오ASI)’를 구축했다. 카카오 ASI는 ▲Kakao AI 윤리 원칙 ▲리스크 관리 사이클 ▲AI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ASI는 지난해 5월 개편된 ‘AI 서울 서밋’에서 선언한 ‘서울 AI 기업 서약’을 위한 실천에 해당한다”며 “AI 윤리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선제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또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AI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평가·관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갖고 있다.

네이버의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는 레드팀 테스트, 전문 데이터 확보, 강화 학습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 생성 정보의 정확성, 편향성, 안전성 등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다 문화권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 문화의 특징과 사회적 맥락을 학습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 또한 AI 모델의 편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용 데이터 내 ‘유해 표현 검출 인공지능 모델 및 유해 표현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인공지능 모델은 주어진 말뭉치 데이터 내에서 유해 표현을 검출하고 다양한 유해 표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LLM 데이터의 품질 검증 과정에서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자체 성능 검증 결과, 해당 모델은 80~90%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며 유해 표현 검출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학습용 데이터는 ▲유해 표현 검출용 데이터 20만 건 ▲유해 표현 카테고리 구분용 데이터 21만 건으로 구성돼 있다.

황종성 NIA 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윤리적 고려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는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네이버, SME 기반 로컬커머스 생태계 확장

(중소상공인)

日 법인 통해 ‘야놀자솔루션’ 인수  
외식업 시장서 경쟁력 확보 기대  
로컬커머서도 UX 구축 움직임

네이버가 외식업 디지털 솔루션 기업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을 인수하며 로컬 커머스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낸다.

21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일본 현지 법인인 ‘네이버 J.Hub 코퍼레이션’을 통해 야놀자의 자회사인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을 인수했다. 거래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은 외식업 매장을 위한 줄서기 관리 시스템 ‘나우웨이팅’, 모바일 주문 서비스 ‘야오더’, 고객 마케팅 솔루션 ‘도도포인트’ 등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소형 매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카카오가 주요 주주로 참여했던 바 있으나, 2020년 야놀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략적 투자 유치 또는 매각 가능성이 꾸준히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이 모바일 기반 주문 솔루션 ‘ya(야)오더’ 홍보 웹사이트. /캡처

히 제기돼왔다. 2023년 기준 매출은 63억 원, 당기순손실은 83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야놀자가 매물로 내놓으면서 매각이 본격화됐다. 이미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한 티오더 등 기존 사업자와 하이오더(KT), 배민오더(우아한형제들), 토스플레이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테이블오더 시장 경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인수에 나서면서, 양사는 새로운 전략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인수는 네이버의 SME(중소상공인) 기반 로컬 커머스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네이버플

레이스’, ‘네이버 스마트주문’,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이미 운영 중이며, 여기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의 기술과 인프라를 더해 외식업 시장에서 보다 견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같은 별도 쇼핑앱을 출시하며 초개인화 기반의 커머스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로컬 커머스 영역에서도 ‘예약·주문·결제·리뷰’로 이어지는 통합된 사용자 경험(UX)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의 웨이팅 및 주문 기능은 이와 같은 전략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인수 주체가 일본 법인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단순 국내 서비스 연계를 넘어, 일본 시장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일본 외식업계 역시 테이블오더, 웨이팅 관리 등 디지털 솔루션 도입 수요가 높은 만큼,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의 기술과 네이버의 플랫폼 역량이 결합할 경우 현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서현 기자

## SKT, 10년 우수고객 위한 ‘숲캉스’ 행사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서 진행  
봄·가을 시즌, 총 7500명 규모 운영

SK텔레콤이 이달부터 장기 이용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이벤트 ‘스페셜 T 숲캉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숲캉스는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를 하루 동안 전용 공간으로 개방해, 10년 이상 SKT 이용 고객과 가족에게 자

연속 힐링 경험을 제공하는 감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봄 시즌은 4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3회, 가을 시즌은 9~10월 진행된다. 한 회당 최대 5인까지 참여 가능하며, 총 75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응모는 T월드 내 ‘스페셜T’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숲캉스 현장에서는 도시락, 간식, 피

크닉 키트 등 전원에게 풀세트 지원이 제공되며, 숲 산책, 테라리움 클래스, 글라이더 날리기 등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130: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장기 고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SKT는 2024년부터 ‘스페셜 T’를 정식 론칭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데이터 지급, 30년 이상 고객에게는 T멤버십 V IP 자동 부여 등 다양한 장기 고객 우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김서현 기자

## LG U+, ‘캐치! 티니핑’ 한정판 굿즈 판매

A16 케이스, 그림톡 세트 선택

LG유플러스가 27일까지 유플러스닷컴에서 SAMG엔터의 인기 IP ‘캐치! 티니핑’ 한정판 굿즈 세트를 단독 판매한다.

따뜻한 이야기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는 캐치! 티니핑은 유튜브와 OTT에서 누적 조회수 13억회를 넘긴 인기 애니메이션이다.

이번 세트는 휴대폰 케이스(A16 모델) 또는 그림톡, 레드백, 넥스트랩, 갤럭시 테마, 스티커 세트, 다이어리로 구성된다. 고객은 A16 케이스와 그림톡



LG유플러스 모델이 캐치! 티니핑 굿즈 세트를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포토카드는 LG유플러스 고객에게만 증정된다.

/김서현 기자

## LG CNS, 수학적최적화 기술확산 가속화

‘최적화 통한 경영혁신·미래전략’ 포럼 플랫폼 ‘MOP’, 광고업계 성과 공개

디지털 전환(DX) 전문 기업 LG CNS가 수학적최적화 기술로 다양한 산업군의 난제 해결에 나섰다.

LG CNS는 지난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수학적최적화 기반의 혁신 사례와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수학적최적화는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최선의 해답을 도출하는 인공지능(AI) 핵심 기술이다. 의사결정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AI 기술의 진화 형태인 ‘에이전트 AI’ 구현에 필수 요소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수학적최적화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적화를 통한 경영 혁

신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수학적최적화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교통, 금융, 물류 등 각분야 산업군의 관계자가 참석해 기술 적용 방안과 효과를 논의했다.

LG CNS는 포럼에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MOP’를 기반으로 광고 업계에서 낸 성과를 공개했다. 이 플랫폼은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 전략을 수학적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셀러의 광고 효율을 극대화한다. 고객이 가장 활발히 검색하는 시간이나 최적의 광고 노출 위치, 경쟁사 입찰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광고 전략을 수립한다.

이날 LG CNS에 따르면, 2023년 5월 MOP 출시 후 2년 만에 2000여개 고객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고객이 MOP를 통해 취급하는 광고 금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車·조선 실적 ‘양호’ 예상... 하락하던 증시, 반등 시그널?

## 주요기업 1분기 실적발표 시즌

현대차 영업익 전년비 1.05% 증가 HD한국조선·한화오션 등 조선업 영업익 각각 217%·175% 급증 “1분기 실적 받쳐주면 반등 가능성”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1분기(1~3월) 실적을 발표한다.

올해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 및 경기 둔화 등 경영 악재가 한꺼번에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상당수 기업은 부진한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실적 호전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발 영향도 예상된다. 이번주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M7) 7종목 중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 ◆차·조선 ‘양호’, 철강 ‘부진’ 예상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를



Chat GPT가 생성한 기업 실적 관련 이미지.

보면, 20여개 증권사가 예측한 1분기 현대차의 매출액(증권사 평균, 연결 기준)은 43조3323억원, 영업이익은 3조5945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6.58%, 1.05% 증가한 수치다. 기아는 매출액이 전년보다 5.41% 늘어난 27조63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05% 감소한 3조2528억원이다.

2분기 이후 실적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이 이달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붙이고 있어서다.

신한투자증권은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며, 2분기부터는 미국 관세 충격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에 견줘 5.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도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 HD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조6789억원과 5079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21.09%, 217.0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화오션 역시 매출액은 33.85% 늘어난 3조567억원,

영업이익은 175.57% 급증한 1459억원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선업은 자동차와 달리 호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은 한국 조선사에 큰 기회”라며 “실적 개선이 2027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물론 그 이후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철강은 1분기 부진한 성적이 예상된다. 증권가가 예측한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8029억원, 5573억원이다. 전년보다 1.38%, 4.41% 감소한 수치다. 현대제철의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이 6.49% 줄어든 5조5615억원, 영업이익은 95.60% 감소한 25억원이다.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수입산 철강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낮아진 관세 민감도, 1분기 실적에 주목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관세 쪽 잡음이 계속되었지만 정점을 찍었다면 기존에 시장이 신경을 썼어야 할 것들

에 대한 민감도 올라갈 시점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주에는 주요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제외하면 경제지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실적에 시장 관심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증시 이익추정치는 반년 가까이 이어지던 가파른 추경치 하향 조정 추세를 멈추고 3월 중반부터는 소폭 반등한 상태”라며 “이미 시장 눈높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정도의 숫자만 제공된다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세, 매크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관세가 주식 시장에 초래한 직접적인 부작용은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실적 시즌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분기 실적만 잘 받쳐준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미래운용 호주 ETF자회사, 운용자산 9조 돌파

###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 상위 5대 운용사 반열에 올라

미래셋자산운용이 호주 ETF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자회사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Global X Australia)의 운용자산(AUM)이 100억 호주달러(약 9조원)를 돌파하며, 뱅가드·베타셰어즈 등과 함께 상위 5대 운용사 반열에 올랐다.

세계 최초 금 현물 ETF를 출시한 원자재 ETF 강자로 출발해, 최근에는 테마형과 채권형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미래셋자산운용은 21일 “지난 2022년 6월 인수한 ETF 전문 운용사 ‘ETF 시큐리티즈(Securities)’를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로 리브랜딩한 이후 총 43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AUM이 100억 호주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인수 당시인 2022년 6월 46억4000만 호주달러였던 운용자산은 지난해 말 91억3000만 호주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최근 100억 호주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뱅가드(Vanguard), 베타셰어즈(Betashares), 아이셰어즈(iShares), 반에크(VanEck)에 이어 호주 ETF 시장 내 5위



호주 증권거래소(ASX)에서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의 ‘Global X Gold Bullion Currency Hedged (GHLD AU)’ 신규 상장을 기념해 진행된 오프닝벨 세레모니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셋자산운용

운용사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통적으로 원자재 ETF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자 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 투자 수요를 겨냥한 다양한 ETF 라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 금 현물 ETF인 ‘Global X Physical Gold Structured(GOLD AU)’를 비롯해 ‘Global X Gold Bullion(GXLD AU)’, ‘Global X Gold Bullion Currency Hedged(GHLD AU)’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글로벌엑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테마형, 인컴형, 채권형 등 혁신

상품도 적극 도입 중이다.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끈 상품을 호주에 처음 도입한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GXAI AU)’, ‘Global X Defence Tech(DTEC AU)’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향후 코어(Core) ETF 상품을 강화하고, 미래셋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인 호주 ‘스탁스팟(StockSpot)’과 협력해 현지 연금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알렉스 자이카(Alex Zaika)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호주 투자자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특히 연금 투자자들의 장기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KB증권 프라이머센터, 연간 4.4만명 상담

### 오픈 5주년 성과

KB증권은 프라이머(Prime) 센터 오픈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21일 밝혔다.

KB증권은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자산관리에 깊은 조언을 얻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감안해 2020년 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Prime센터를 처음으로 오픈했다.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PB와 손쉬운 비대면 상담’을 목표로 오픈한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주식과 금융상품은 물론 세무, 부동산, 연금 등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KB증권에 따르면 2024년 연간 Prime센터를 통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4만4000여 명으로 Prime 프라이빗뱅크(PB) 한 명이 연간 1000여 명의 고객과 상담을 진행한 셈이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 이용 고객의 계속되는 증가는 2022년 7월, 강남구 대치동

에 Prime2센터를 추가로 오픈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Prime센터는 고객이 선호하는 특정 Prime PB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익숙한 PB와 투자 및 자산관리에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전담 PB를 지정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8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상담 내용 가운데 주식과 금융상품 투자가 85% 이상을 차지했고, 작년에는 ‘밸류업’ 관련 상담이 전체 10.1%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비대면을 통한 연금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Prime센터 내에 ‘연금자산관리센터’를 별도로 신설했다. 연금자산관리센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3층 연금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고객이 전반적인 연금 제도와 세제 혜택을 이해하고 은퇴 후 자산운용 전략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하은 기자 godhe@

## 코스콤, 장애인 예비창업자 5000만원 후원

### 푸르메재단에 전달

코스콤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푸르메재단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콤이 후원하고 푸르메재단이 함께 하는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은 IT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코스콤과 푸르메재단은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멘토링까지 다방면으로 장애인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기에 선정된 5개팀 중 우수 3개팀은 후속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창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2기는 1기와의 활발한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받을 예정이다.

공모전 기금은 장애인 예비 창업자들에 사업지원금을 제공해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 이오타서울 우선협상 대상자에 ‘리츠칼튼’

### 이지스운용, 개발 연면적 46만㎡

이지스자산운용은 옛 남산 힐튼호텔 부지 일대에 조성되는 대형 복합단지 ‘이오타서울’의 호텔 운영 우선협상 대

상자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리츠칼튼’ 브랜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역 맞은편 옛 남산 힐튼호텔 부지 일대를 글로벌 수준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지

스자산운용과 현대건설이 사업개발 주체 및 시공사로 참여한다.

지하 10층~지상 39층 규모의 오피스와 호텔을 비롯해 신규 브랜드 중심의 리테일 시설이 들어선다.

전체 개발 연면적은 46만㎡이며 이중 호텔은 5만8403.9㎡를 차지한다. 호텔은 2031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허정윤 기자

# 정부 양보에도 수업 대신 거리로... 의대생 유급 현실화

의대생들 수업 불참률 70%  
32개 의대 유급 시한 줄도래  
일부 대학 불참자에 유급 통보  
교육부 “학사 유연화 없다”

지난해부터 의료계 반발을 촉발했던 의대생 정원 확대가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이어지면서 대량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내년 의대 정원뿐 아니라 정부 의료개혁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20일)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결기대회’에 의대생 6000명 포함 2만5000명이 참석하며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각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환원한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정부가 수용해야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은 한시적인 모집 인원에 불과하다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도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결기대회에 참가한 의대생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동결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선우 의대·의전원학생협회장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정책 패키지는) 탁상행정만 하는 문과 관료들의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우리는 1년 만에 대학에 휴학할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송고하고 어렵다면 이 길(의사)을 걸어야 할 이유를 모

두 빼았겼다”고 토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의대생 후배들은 현재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되뇌고 있다”라며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집계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 7개 학년 평균 16일 기준 수업 참석률은 25.9%에 그쳤다. 서울·수도권 소

재 대학은 참여율이 평균 40%에 육박한 반면, 증원이 많이 된 지방 대학은 평균 22%에 그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이 확정된 이후 공식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언론간담회에서 “현재 온라인 수업에 40% 정도 참여하고 있고, 60%는 온라인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사이, 대학의 유급 결정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각 의대는 본과 3·4학년 중 각 실습강의에 불참한 의대생들에게 지난주부터 유급 결정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이수하지 않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받게 된다. 유급이 누적되면 학적 말소, 즉 제적된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고려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등 13곳의 유급이 확정됐고, ▲16일 전남대 ▲18일 경희대, 순

천향대 ▲21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원광대, 인제대 ▲22일 한양대, 한림대 등에 이어 이달 말 동국대의 대를 마지막으로 전국 32개 의대의 유급 기한이 돌아온다. 다만 각 대학은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해 당장은 유급 결정을 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시점인 학년 말에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 복귀 사항을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학사유연화도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업 참여 추이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안내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각 대학 유급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학사유연화 없이) 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고 각 대학 총장·학장님들이 학기 말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22일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를 통해 약 20여명의 의대생을 만나, 수업 복귀 독려 및 의대교육정상화를 위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청계천 내일 개장

서울광장은 내달 4일부터 운영  
장소 특성 살린 다양한 행사도

서울야외도서관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23일 올해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서울야외도서관은 1만명 규모의 공공복합클럽 ‘힙독클럽’ 출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운영, 14개 자치구로 야외도서관 확산 등 한층 다채워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광화문 책마당’과 청계천 ‘책읽는 맑은 냇가’는 23일, 서울광장 ‘책읽는 서울광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내달 4일 개장한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운영 방식을 개선해 광화문, 청계천, 서울광장 세 곳 모두 주 3일(금·토·일) 운영한다.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초)로

나눠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위주로 특별 운영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강서, 광진, 성북 등 14개 자치구에서도 공원, 도서관 앞 야외마당 등을 활용한 ‘자치구 야외도서관’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시는 도서, 돛자리, 북 라이트, 캠핑 의자 등으로 구성된 ‘북코닉 키트’ 1000여개를 제작해 서울시 내 초·중·고, 대학교, 문화시설 등에 대여하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을 시작한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세 곳은 각 장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도심 속 휴양지’ 콘셉트의 ‘광화문 책마당’은 북악산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하는 ‘달빛낭만극장’과 ‘달빛낭만콘서트’를 정기 운영한다.

서울광장 ‘책읽는 서울광장’은 잔디밭을 무대로 ‘잔디 씨어터’, ‘잔디 버스킹’을 매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레고 코리아와 협력한 ‘레고 라이브러리’,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도서를 만나는 ‘여행도서관’, 아이도 부모님도 행복한 ‘창의놀이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세 곳의 야외도서관 모두 공간 콘셉트에 맞춰 디지털 기기를 잠시 끄고 독서에 오롯이 몰입하는 ‘책명’ 프로그램을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1만2000여 권의 도서를 새롭게 선정해 비치하고, ‘책읽는 서울광장’에서는 광장의 시그니처 서가에 비치된 큐레이션 도서를 직접 배달해주는 ‘퀵(Quick) 서비스’와 미처 다 읽지 못한 책을 다음 방문에 이어볼 수 있도록 보관해주는 ‘킵(Kee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 서울 박물관 영유아 맞춤형 놀이·체험 확대

시교육청-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돌리뮤지엄 등 11개 박물관 참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시박물관협의회(회장 박미정) 및 산하 11개 박물관과 협력해 영유아 맞춤형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박물관 협의회 및 11개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 박물관은 고촌이종근기념관, 다문화박물관, 돌리뮤지엄, 북촌박물관, 떡볶이박물관, 유급와당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춘원당 한의약박물관, 피규어뮤지엄W,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등 11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보통합 정책 특색

사업 중 하나인 지역 연계 박물관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맞춤형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박물관협회의, 11개 박물관은 ▲산하 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박물관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박물관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기타 지역사회 연계 박물관 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박물관협의회와 11개 박물관과의 협약을 통해 영유아 맞춤형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확대와 서울시 박물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사이버대, 강북스마트팜 교육 지원

강북구청과 자문 업무협약 체결  
지속가능 도시농업 생태계 조성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 15일 강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센터 ‘강북스마트팜’의 개관식에 참석해 교육지원 및 자문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 임정선 평생교육원장, AI스마트팜학과 박찬수 학과장 및 이현진 교수가 참석해 개관식 및 협약식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서 주관하는 ‘강북스마트팜’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 기관은 강북구청과 서울사이버대를 포함해 ▲강북청년창업마루 ▲커피가농성 ▲롯데마트 삼양점 ▲파라스파라 서울 등 총 6곳이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강북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스마트팜 BI(북한산농장) 활용 및 공동 홍보 ▲청년창업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강북스마트팜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활성화 및 상시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이현진 기자

## 동국대 경영대학 AACSB 국제경영교육 재인증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16일 경영대학(학장 정욱)이 세계적 권위의 경영교육 인증기관인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로부터 국제경영교육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1961년 미국에서 설립된 AACSB는 전 세계 16,000개 이상의 경영대학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경영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교육 인증기관이다. 국내에는 동국대 포함 18개 대학이 이 인증을 획득했다.

동국대 경영대학은 2012년 최초 인증

을 시작으로, 2020년과 2025년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재인증은 인증 주기가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며, 동국대 경영대학은 교육 품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동국대 경영대학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진행된 현장 방문 평가에서도 전방위적인 교육 혁신과 글로벌 교육 환경 강화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성과 관리체계(AoL)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현진 기자



Musical

#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당신에게 꼭 맞는 아지트”

휴남동 서점

##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퓨터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interpark** 티켓 공연문의 02.332.4902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 경주시, 추경 2350억 편성... APEC 준비·지역경제 활성화

본예산, 11.6% 늘어난 2조2600억 APEC 정상회의 기반시설 정비 시민체감도 높은 현안사업 중심



경주시청.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23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경주시의 올해 총 예산은 당초 본예산 2조250억원에서 약 11.6% 증가한 2조26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25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61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347억원으로 389억원 늘었다.

재원은 ▲지방세 수입 5억원 ▲세외수입 64억원 ▲지방교부세 510억원 ▲조정교부금 239억원 ▲국·도비 보조금 47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4억원 등으로 확보했다.

이번 추경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사업을 중

심으로 편성됐다. APEC 관련 사업으로는 ▲보문 야간경관 개선 75억원 ▲회의장 진입로 경관 정비 59억원 ▲회의장 주변 교통 인프라 정비 29억원 ▲만찬장 및 회의장 일원 경관개선 20억원 ▲회의장 주변 복천 하천 정비 15억원 ▲주요 사적지 정비 18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성권1지구 뉴빌리지사업 61억원 ▲안강 양월2리 LPG 저장탱크 보급 22억원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18억

원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위해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33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9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22억원 ▲논타작물 재배농가 지원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신당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3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3억원 ▲마을방범 CCTV 및

가정용 수신기 보급 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이 집중됐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50억원 ▲유립공영주차장 건립 37억원 ▲흥무로(동대유치원~동대교) 등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 67억원이 편성됐다.

복지 분야에는 ▲참전·보훈명예수당 21억원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15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6억원 ▲청년신(新)골드창업특구 조성 3억원 ▲출생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3억원 등이 포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추경은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시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 열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남도·담양군·화순군 등과 함께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7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11일 화순과 담양 일원에서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18코스' 450명을 포함해 전국 1450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마라톤대회 코스는 30km 코스, 하프(Half)코스, 10km 코스, 5.18km 코스, 2km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대회 당일 오전 8시 10분 금호화순리조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해 담양가사문학면 인암삼거리를 지나 다시 금호화순리조트로 돌아오는 코스다. /광주=양수영 기자

### 창원시 누비전, 200억 규모 확대 발행

경남 창원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5월 1일부터 2일까지 확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은 모바일형만 발행되며, 총 2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개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20만원이며, 7%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0년 이전 출생자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우선 구매 가능하며, 1961년 이후 출생자는 2일 오전 9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다만 1960년 이전 출생자 중 1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2일에도 구매 가능하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 경남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통영의웰피쉬와 거창의덕유산고라니들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조성 등을 청년이 직접 기획·운영해 청년이 모이는 마을을 만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단체에 3년간 국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진행비가 전체 예산의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김해시 '책 읽는 도시' 김해독서대전

경남 김해시는 '책 읽는 도시 김해'를 대표하는 책 축제인 '2025 김해독서대전'을 26~27일 양일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김해독서대전은 '책 읽는 도시'를 주제로 강연, 공연, 전시, 북페어, 체험 등 6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축제로 꾸며진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 단체사진

/전남도

## 전남도, 5개국 지방정부와 교류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교류 기대 20개 지방정부 국제교류 담당자 참가

전라남도는 지난 18일부터 4일간 '제2회 전라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를 열어 아시아 5개국 20여 지방정부와 교류를 강화했다.

교류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교류를 기

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우호지역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잠재 교류 지역까지 아시아 5개국 20개 지방정부에서 40여 명의 국제교류 담당자가 참가해, 전남도와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전남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향후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중점 홍보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진주시 '진주드림', 6개국 해외 상표등록

인도네시아·캐나다 추가 등록 예정

경남 진주시는 21일 시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진주드림'이 일본·홍콩·태국·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 등 6개국에 해외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주드림'은 시가 지난 2020년 5월 지역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개발한 것으로 '진주의 보석 같이 귀한 농산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내 우수 농산물 35개 품목에 대해 44개소 1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류, 가공식품류 등 4개 상품류에 대해 국내 상표등록을 완료했고, 과실음료 등 2개 상품류를

추가로 출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해외 수출국에 '진주드림'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상표 사용 권리를 확보하고 신선 농산물 수출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해외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이 최종 승인됐고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도 추가로 등록될 예정이다.

시는 '진주드림 쌀'을 2023년에 호주로 처음 수출했고, '진주드림 계란'을 홍콩으로 수출하는 등 지난해 신선 농산물 5939만 달러, 가공농산물 94만 달러 등 총 6033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소담스퀘어 부산 지원 사업' 시행

부산시가 소상공인 700개사의 온라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무료 홍보영상 제작부터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촬영까지 디지털 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소담스퀘어'가 원스톱으로 도와준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2025년 소담스퀘어 부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담스퀘어 부산'은 시와 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협업해 운영하는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 기관으로, 부산 동구 KT부산지사 건물 18층에 위치해 있다. 촬영 스튜디오와 녹음실, 편

집실,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21년부터 이를 통해 총 9781개사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058개사, 3412개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도왔다. 올해는 10개 사업을 통해 총 700개사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모집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쿠폰발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판매기획전 운영 사업' ▲제품·매장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홍보영상 제작 및 온라인 게시 지원' ▲소담스퀘어 시설을 활용해 실시간 판매 방송 촬영·송출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이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 안동시, 산불로 발생된 폐기물 48.2만t

처리비용 430억 추정

경북 안동시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길안면 등 6개 지역에서 산불 폐기물 처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발생된 폐기물은 NDMS 입력자료 기준 약 48만2000t으로 처리 비용은 43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단순 매립 및 소각 방식을 지양하고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날부터 시작된 주벽 철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구분해 처리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은 지역 내 5개소에 설치된 임시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 백화점·패션기업 ‘울상’ 가전업계 ‘활짝’... 이상기후 ‘희비’

통상적 ‘성수기’ 백화점업계 소비위축·불규칙 날씨에 실적 ‘뚝’ 무신사, 체감상 역성장 ‘비상경영’ 이른 더위에 가전양판업계 ‘활기’ 하이마트·전자랜드 에어컨 매출 ↑ 삼성·LG 에어컨 판매량 50% 증가



고객들이 서울 시내 가전제품 매장에서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고객이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선풍기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상기후가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봄 간절기 의류 판매가 부진해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가전양판업계는 이른 더위에 발맞춰 에어컨 판매전에 돌입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백화점 업계는 사실상 올해 봄 시즌 장사가 끝났다고 보고 여름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2~3월은 일반적으로 봄 간절기 의류 판매의 성수기로 통상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불규칙한 날씨까지 겹치며 실적이 뚝 떨어졌다. 롯데백화점의 패션 부문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고, 신세계(0.9%)와 현대백

화점(0.2%)도 간신히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지난해 매출 1조를 돌파한 패션 회사 무신사도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남성복, 여성복은 물론 유아·아동, 스포츠, 아웃도어 등 대부분의 상품군이 부진했다. 업계는 체감상 역성장이라는 반응이다.

패션 판매 부진은 백화점 뿐만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패션의류 판매는 오프라인 매장 -9.4%, 온라인 -9.7% 등 모든 채널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올해 2월의 평균기온은 0.5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고, 3월에도 기온 급강하와 잦은 눈으로 봄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점이 수요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패션 브랜드들과 함께 ‘기후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절기 상품 비중 축소와 출시 시점 조정 등을 논의 중이다. 롯데백화점도 여름 특화

팝업스토어를 조기 운영해 시즌 선점에 나선 상태다. 신세계 역시 사계절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기온 흐름에 따라 상품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가전양판업계는 때 이른 무더위를 반영한 조기 수요로 활기를 띠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3월 에어컨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전자랜드도 같은 기간 판매 수량이 약 10% 늘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1분기 에어컨 판매량이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이른 더위와 긴 여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에어컨을 미리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이 4월에 시작돼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가전업계는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주요 에어컨 모델을 특가에 판매하고, 청소 서비스 할인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랜드는 100만 원 이상 에어컨 구매 시 무이자 할부와 최대 50만원 캐시백을 제공하며 공격적인 판촉에 나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계절 중심의 기존 전략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소비자의 생활패턴과 날씨 흐름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웰푸드, 평일 저녁식사 위한 ‘식사이론’ 삼양라운드시퀘어 ‘푸드케어 놀이터’ 성황

숯불향 오븐치킨 등 신제품 7종 출시 조리 번거로움 줄이고 만족감 높여



식사이론 제품 라인업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가 자사의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Theory of S ICSA)’을 통해 신제품 7종을 출시했다.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식사이론’은 영양과 맛, 간편함을 함께 고려한 간편식을 표방한다. 이번 신제품은 특히 시간에 쫓기는 30~40대 직장인의 평일 저녁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 조리의 번거로움을 줄이면서도 식사의 만족감을 높였다.

출시 제품은 ▲숯불향 오븐치킨 매콤양념 등 오븐치킨류 1종, ▲통살숙 한입카츠, 통닭다리살 한입카츠 등 카츠류 2종, ▲동과육청경채만두, 백김치새우만두 등 만두류 2종, ▲맵칼떡볶이, ▲닭가슴살 야채스틱으로 총 7종이다.

‘숯불향 오븐치킨 매콤양념’은 닭다리살을 기반으로 쫄깃한 찢떡과 매콤한 양념을 더한 제품이다. 오븐 조리 방식으로 기름기를 줄였다. ‘통살숙 한입카츠’와 ‘통닭다리살 한입카츠’는 각각 돼지고기와 닭다리살 통살을 그대로 튀겨낸 것으로, 한입 크기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두류는 풍미와 식감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동과육청경채만두’는 육즙을 보존하는 그레놀 공법

을 적용했으며, 국내산 돼지고기와 채소를 조합해 감칠맛과 아삭한 식감을 동시에 살렸다. ‘백김치새우만두’는 새우살과 백김치, 다섯 가지 야채를 사용해 담백한 맛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야채 육수 기반의 매콤한 소스를 더한 ‘맵칼떡볶이’, 닭가슴살과 야채를 조합한 고단백 꼬치 제품 ‘닭가슴살 야채스틱’도 함께 출시됐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시간과 가성비비를 중시하는 ‘시성비’ 소비 트렌드에 맞춰, 건강과 간편함을 결합한 간편식 제품을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사 상황을 고려한 제품군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백년가게’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일부 백년가게 메뉴를 간편식 형태로 상품화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신원선 기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부스 운영

삼양라운드시퀘어는 ‘2025대한민국과학기술축제’에서 운영한 체험형 부스 ‘푸드케어 놀이터’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삼양라운드시퀘어는 자사의 헬스&푸드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터’ 콘셉트로 부스를 꾸렸다.

현장에서는 ▲대체육으로 햄버거를 만들어보는 ‘헬시 버거 챌린지’ ▲영양소 볼 던지기 게임 ‘볼볼볼 영양소’ ▲로밍머신을 통해 칼로리 소모를 실시간 체험하는 ‘볼태워! 칼로링머신’ 등 6가지 이색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미션 수행 결과에 따라 3D 프린트

디저트, 삼양식품 스낵, 스페셜 굿즈 등 다양한 경품도 받았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부스 예약은 조기 마감됐고, 현장 대기 인원이 몰리며 매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과학 유튜버 허성범을 비롯해 다수의 크리에이터도 현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리며 부스 앞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축제 기간 동안 ‘푸드케어 놀이터’에 방문한 인원은 총 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삼양라운드시퀘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5월 공개 예정인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 공모전에 대한 기대감도 끌어올렸다. 현장에 마련된 QR코드로 공모전 홈페이지를 둘러보거나, 직원에게 직접 참가 방법을 문의하는 관람객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신원선 기자

## SSG닷컴, 가정의달 ‘선물대전’ 진행

정관장 등 건강식품 최대 80% ↓

SSG닷컴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대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정관장·오쏘몰·광동·GNM 등 인기 건강식품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하는 ‘어버이날 기프트데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한산인 홍삼농용진액, 코오롱제약 전립선 쏘팔메토 옥타코사놀과 같은 중장년 남성용 건강식품부터 동국제약 마이핏 나이트슬리밍 핑크핏 다이어트 등 중장년 여성을 위한 건강식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건강식품 3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되는 장바구니 쿠폰도 매일 발급한다.

5월 11일까지는 안마의자·전기면도기·헤어드라이어 등 생활가전을 특가 판매하는 효도가전 할인행사도 연다. 코지마 테라팝 등 인기 안마의자를 최대 50만원 할인해 최저가 수준에 선보인다.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를 비롯한 필립스 생활가전 50여종은 최대 30% 할인한다. 필립스 생활가전은 슝닷컴의 익일 도착보장 서비스인 스타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SSG머니 적립 및 사은품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이제는 SSG닷컴 영업마케팅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엄선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롯데백화점 ‘베이비&키즈페어’

롯데백화점이 5월을 맞아 상반기 최대 혜택을 담은 ‘베이비&키즈페어’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하며, 관련 유아용품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행사다.

롯데백화점 키즈 매출 1위 점포인 잠실점에서는 ‘줄즈’, ‘베네피아’, ‘에그’, ‘무무슈’, ‘리우드’, ‘블루독베이비’, ‘압소바’ 등 총 12개 브랜드가 베이비페어에 참여한다. 특히 프리미엄 수요가 큰 잠실 상권에 맞춰 2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내 최초 ‘줄즈’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이세경 기자

## 대상, 대리점주 ‘쉐프윈 FAN 캠프’ 개최

파트너십 강화, B2B 영업 활성화 도모

대상(주)의 B2B 식자재 유통 브랜드 ‘쉐프윈’이 대리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B2B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쉐프윈 FAN 캠프’를 지난 18~19일 양일간 강원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대리점주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쉐프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쉐프윈의 강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 체험과 함께, 전 일정 동안 쉐프윈 식자재로 구성된

식사를 즐기며 제품의 품질과 활용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이벤트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방송인 윤택이 참여한 토크쇼에서는 대리점 운영에 얽힌 다양한 사연을 나누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은영 대상(주) 식품BU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쉐프윈과 함께해주는 대리점주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캠프는 신뢰와 유대의 기반 위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주)의 60년 식품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 높은 식자재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 “화장품 5000원에 산다”... 뷰티업계, 가성비로 ‘내수 공략’

**LG생활건강 이마트 전용 브랜드**  
모든 제품 4950원에 구매 가능

**아모레퍼시픽·에뛰드**  
다이소 입점 통해 소비자 확보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특정 유통 채널을 공략,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가성비를 앞세운 맞춤형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이마트 전용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온드’를 새롭게 공개했다. 기존 클린뷰티 브랜드 ‘비온드’ 제품을 국내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보이며 모든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 4950원을 적용했다.

이번 신제품의 경우, 클린뷰티 핵심 성분인 콜라겐, 바쿠치올, 글루타치온 등을 담은 8종으로 구성됐다.

피부 탄력과 광채를 관리하는 토너, 크림, 세럼부터 360도 회전하는 볼을 내장해 눈가를 마사지할 수 있는 아이 엠



이마트 전용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온드’ 신제품 8종.

/LG생활건강

플과 팔자 주름에 활용하는 패치까지 5종의 스킨케어 제품이 출시된다. 나이트 마스크 크림, 팩 투 폼, 멀티밤 등 기능성 제품도 함께 선보여진다.

LG생활건강은 이마트와 협업해 효능과 효과를 갖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하기 위한 가성비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해 신제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앞서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도 전용 브랜드를 통해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해 왔다. 더마뷰티 브랜드 CNP를 자매 브랜드 ‘CNP 바이 오디-티디’로 확장한 것이다. 해당 제품군은 다이소 입점 한 달 만에 ‘다이소몰 SNS 핫템’에 선정됐고,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개를 돌파했다. 다이소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완판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다이소에서 스킨케어부터 색조까지 다양한 제품을 내놓아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꽃에서 발견한 성분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킨케어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마몽드의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 바이 마몽드’는 지난해 하반기 다이소에 본격 입점했다. 특히 다이소의 초대형 매장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점에서 체험형 쇼룸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 접점을 적극 확보했다. 다이소는 10~20대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잘과 세대의 피부 고민에 적합한 제품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이후 다이소 입점 4개월 차에 100만개의 누적 판매고를 올렸다.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도 올해 2월부터 다이소 입점 브랜드 ‘플레이 101’을 앞세워 젊은 소비자층을 확보했다.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제품을 3000원~5000원으로 제공한다. 파우더, 아이섀도우, 마스크라, 립 글로스 등 제품 종류도 25종에 달해 메이크업을 즐기는 소비자 취향까지 아우른다.

이에 따라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국내 사업에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뷰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화장품 사업으로 2조8506억원의 매출을 올

렸고, 국내 매출로는 1조5583억원을, 해외 매출로는 1조8015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가운데, 국내 매출은 3% 줄고, 해외 매출은 11% 늘었다. 국내 매출은 2023년 1조6185억원, 2022년 1조8205억원 등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아모레퍼시픽도 지난해 전년 대비 5.7% 증가한 3조8851억원의 연매출을 냈다.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은 각각 2조1570억원, 1조6789억원이다. 전년 대비 국내 매출은 2.4% 감소했고, 해외 매출은 20.6% 증가했다.

국내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K뷰티 돌풍으로 화장품 사업이 호황을 맞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국내 사업이 주춤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기존 뷰티 브랜드의 데일리 뷰티나 생활용품에서 차별화된 신제품과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단기적인 관심으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별 소비자 접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중요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 “올해도 선제적 생산능력·고품질·글로벌 파트너십 지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창립 14주년**  
CDMO 시장 후발주자 합류에도  
외형·매출 성장세... 연매출 4兆 돌파  
글로벌 1위 수준 ‘초격차’ 유지 전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올해도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에 중점을 둔 ‘3대 축 확장 전략’에 속도를 낸다.

2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21일 인촌 송도에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경쟁 대열에 합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는 글로벌 상위 20개 빅파마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해 ‘K-CDMO’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설립 초기 110여 명에 불과했던 임직원 수는 현재 약 5000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제4공장에서 배양기를 점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으로 늘어났다. 외형 성장과 함께 매출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창립 9년 만인 2020년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 최초로 연매출 3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매출 4조원을 넘어 올해 매출 전망치는 전년 대비 20~25% 증가한 5조5705억원에 달한다.

수주 실적으로는 지난해에만 약 1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3건 체결해 창사 최초로 연간 수주액 5조원을 올렸다. 이어 올해도 1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47억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빠른 성장 요인으로 신속하고 선제적인 생산능력 확보, 높은 품질,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꼽았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구축한

생산능력은 총 78만4000리터로 글로벌 1위 수준이다. 이달 본격 가동을 앞둔 5공장의 경우 기존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 리터의 생산 시설이다.

무엇보다 5공장은 제2바이오캠퍼스의 초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2년까지 5공장도 동일한 규모의 공장 3개를 추가로 건설해 글로벌 1위 수준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펼친다. 6~8공장까지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132만4000리터로 커지면서 현재 생산능력 대비 69% 늘어나게 된다.

품질 측면에서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제조 승인 건수는 350건 이상이며, 실사 통과율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 등 독자적인 첨단 기술로 경쟁력을 높인다. 바이오의약품과 직결되는 ‘데이터 무결성’을 이뤘다는 방침이다. 이는 의약품 생애 주기에서 발생

하는 모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보존된 상태로 품질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기존 항체의약품, 완제의약품, mRNA 기반 약물 등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과 같은 차세대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한다.

글로벌 거점 확대 측면에서는 미국 뉴저지, 보스턴 등에 영업사무소를 마련했다. 또 일본 및 아시아 중요 지역에서도 영업 활동을 확대해 고객사 범위를 글로벌 상위 20위에서 40위로 늘릴 계획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년간 글로벌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을 선도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겠다는 회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가노이드 기술 활용방안 논의

‘차세대 바이오 혁신’ 주제로 세미나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본원 학술문화관 정근모컨퍼런스홀에서 ‘차세대 바이오 혁신(The Next Generation of Biomedical Innovation)’을 주제로 제6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AIST·오가노이드사이언스·토모큐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산업계 연구자 200여 명이 참석해 국

내 오가노이드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발표에 나선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은 ‘동물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Opening the New Horizon of Animal Science)’를 통해 동물 모델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윤기준 KAIST 교수(인간 뇌 오가노이드 기반 신경질환 연구) ▲김우식 KAIST 교수(자가면역질환의 이중가닥 RNA 조절 매커니즘) 등이 잇따라 강연에 나서 KAIST가 국내 오가노이

드 연구 생태계의 허브임을 입증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손미영 부장과 이경륜 박사가 참여,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폐막 강연에 나선 유종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는 재생 치료제 플랫폼 ‘아톰(ATORM)’과 신소재 평가 플랫폼 ‘오디세이(ODISEI)’를 소개하며 “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오가노이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 JW중외제약, 종합감기약 신제품 ‘화콜 정’

필름코팅정제 형태로 변경

JW중외제약은 종합감기약 ‘화콜 연질캡슐’의 제형과 포장을 개선한 신제품 ‘화콜 정’ (사진)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화콜 정’은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질캡슐에서 필름코팅정제 형태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필름코팅정제는 일반 정제의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힌 것으로 표면이 매끄러워 목넘김이 부드럽고 복용

후 쓴맛이나 이물감이 적다. 제형 크기 또한 가로 1.32cm, 세로 0.61cm, 두께 0.45cm로 작아 남녀노소 부담없이 복용할 수 있다.

제품 패키지도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했다. 작은 정제 크기를 강조한 간결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제품의 특징점을 시각화했으며 효능·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그림 기호)’으로 표현했다. /이세경 기자





ANGELINUS

# 삼성, '코랄 인 포커스' 성과 공개... 산호초 1만㎡ 복원



**한국GM, 쉘보레 대리점 콘퍼런스... 비전·목표 공유**  
한국GM은 지난 18일 인천 부평 본사에서 '2025 쉘보레 전국 대리점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쉘보레 전국 대리점 대표와 1분기 우수 판매자를 포함한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쉘보레의 비전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했다. /한국GM



**진에어, 한진그룹 LCC 3사 합동 등반 대회**  
진에어는 안전운항과 한진그룹 LCC 3사 임직원 간 단합을 위한 북한산 합동 등반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등반에는 각 사의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에어 사내 등산 동호회 '진사랑 산사랑'이 주축이 되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임직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함께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진에어



**LX인터·LX판토스, 인왕산 일대 환경정화 활동**  
LX인터내셔널과 LX판토스는 임직원 40여 명과 지난 18일 서울 인왕산 일대에서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 활동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더욱 확장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사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



**일동후디스, '하이문 스타디움 투어' 성료**  
일동후디스 하이문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이문 스타디움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이문이 2025 시즌 FC서울과의 공식 스폰서십 체결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 이벤트로 참가자들은 라커룸, 인터뷰존, 벤치석 등 생생히 체험하며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다. /일동후디스

## IR협의회, 양태영 회장 취임

양태영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사진)이 한국IR협의회 신입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IR협의회는 제9대 회장에 양태영 전 본부장을 선임하고, 21일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선임 회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를 거쳐 청산결재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을 맡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 갤럭시 카메라 기술로 생태계 기여 '오션 모드' 개발... 3D 복원도 제작

삼성전자가 갤럭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해 1년 동안 농구장 25배 크기 면적의 산호초를 복원하는데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의 해양학 연구소 스크립스와 미국 비영리단체 시트리와 함께 진행 중인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코랄 인 포커스'의 1주년 성과를 21일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바닷속 산호초 사진을 촬영해 산호초의 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원 활동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바닷속 생태계를 관찰하며 새롭게 심어



삼성전자가 해양 보호를 위해 갤럭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 '코랄 인 포커스(Coral in Focus)'를 위해 산호초를 찍고 있는 모습.

진 산호수는 총 1만1046개이며, 1만705㎡의 해양 내 산호초 면적이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 산호초는 해양 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며, 해양 환경 보호와 탄소 순환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호초 복원과 다양한 연구를 활용하기 위해 3차원(3D) 산호초 복원도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 삼성전자는 지역 활동 단체들이 무겁고 보조 장비가 많은 수중 카메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갤럭시 스마트

폰 카메라용 '오션 모드'를 개발해 제공하기도 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가볍고 얇아, 수심 10m 아래로 잠수하기 편하고 산호초 근접 촬영도 쉬워 복원도 제작이 수월하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오션 모드'로 촬영한 산호초 사진은 총 17개의 3D 산호초 복원도로 제작됐으며 산호초 군락 재생의 토대가 됐다. 삼성전자는 더 나은 갤럭시 생태계를 위한 환경 지속 가능 비전인 '지구를 위한 갤럭시'를 지난 2021년 발표 후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삼성전자는 특히 폐어망을 정밀한 스마트폰 부품 소재로 재활용하는 등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중견기업계, 산불 피해복구 성금 5.1억 기부

### 중견련 SIMPAC 등 29개 기업 참여

중견기업계가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영남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5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사진)는 특별 성금 및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회장사인 SIMPAC을 비롯해 서연이화,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삼구아이앤씨, 한국카본, 와이씨, 대창, 오로라월드, 유라코퍼레이션, 인지컨트롤스, 풍전비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엔서해에너지,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에프티, 골든블루, 에프에스티, 코반, 보미건설, 아바코, 원일특강, 서원인텍, 코넥, 동아엘텍, 모나용평, 대덕휴비즈, 선일다이파스, 유로라인글로벌 등 29개 중견기업이 참여했다. 중견련은 지난 2018년 '중견기업인 책임경영 선언'을 발표하고,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협력

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회원사와 함께하는 중견기업계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과 물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은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동아오츠카,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앞장

### 농구·야구 등 주요 대회 후원

동아오츠카는 전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고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종목에서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27년간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후원해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당일 진행된 대회에서 성적이나 순위에 따른 시상 이 아닌, 참가한 모든 구단에게 포카리스웨트 음료를 전달하는 '포카리

스웨트 행복나눔상'을 시상했다. 앞서 18일부터 20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열린 '제3회 폐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와 '2026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도 3년 연속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포카리스웨트와 생수 '마신다' 등을 제공하며 선수들의 수분 보충과 경기력 유지에 기여했다. 이진숙 동아오츠카 마케팅본부 전무는 "열정에서 흘러나오는 선수들의 땀은 그 자체로 큰 감동과 가치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동아오츠카는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와 함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강민석 부사장, 과학기술훈장 수훈

### (LGI노텍)

###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기여

LGI노텍은 강민석 기관소재사업부장(부사장·사진)이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응모장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훈장은 매년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 국가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훈장이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5년 LG이노텍 선행부품연구소장으로 부임해 광학솔루션사업부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거쳐 현재 기관소재사업부장을 맡고 있다. 광학 및 반도체 기관 분야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훈자로 선정됐다. 강 부사장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모바일 카메라 모듈과 통신용 반도체 기관 사업이 글로벌 1위로 자리매김하는 데 견인했다. 대표적으

로 반도체용 기관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과 공법을 적용해 RF-SiP, AiP 등 통신용 반도체 기관의 글로벌 톱티어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강 부사장은 CTO 재임 시절 축적한 DX/AI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생산공정의 DX(디지털 전환)를 적극 주도했다. 특히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전 공정 물류 및 검사 자동화를 실현한 FC-BGA 드림 팩토리(구미 4공장) 구축을 이끌었다. 강 부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LG이노텍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재 부품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리더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 함께해요"

### '리버 플로깅 키트' 무상 제공

코웨이가 내달 2일까지 '2025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21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코웨이 리버 플로깅 캠페인'은 물이 있는 곳 주변에서 달리기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

환경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 '프로젝트 1907'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100% 친환경 소재의 리버 플로깅 키트를 증정한다. 사전 참가 모집은 코웨이 사회공헌 인스타그램 내 프로필 링크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인사

◆한국환경공단 ◇임용(별정직이사대우)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서승명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정기훈 △아프리카중공업 정광용 △아프리카중공업 심의관 조수진

### 부음

▲조문경씨 별세, 이정환(HJ중공업 홍보팀장)씨 배우자상, 이윤중·준우씨 모친상=21일,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6호, 발인 23일 오전 5시30분. 051-893-4444

www.dseshop.co.kr



#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름,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케어
-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 | 구입 문의 **080-854-0082**

# 간에 나쁜 술, 간에 좋은 식품



**연운열의**  
**푸드톡톡**

4월 19일은 '세계 간(liver)의 날'이다. 간은 체내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주요 장기로, 우리가 마신 술의 90% 이상을 간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과음은 간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과 간암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하루 알코올 적정 섭취량은 남성은 20g(소주 2잔), 여성은 10g(소주 1잔)이다. 주당 이틀 이상은 반드시 금주일을 두어야 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흡연, 석면, 벤젠과 같은 수준으로 명백하게 발암성을 가진 물질임을 뜻한다. 과도한 음주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이는 수많은 역학연구와 메타분석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음주의 양뿐만 아니라 빈도와 기호도 발암 위험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적당한 음주'라는 말도 개인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만성적인 음주는 명백히 간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음주문화 중 폭탄주는 알코올 흡수를 가속화해 간에 치명적이다. 지나친 과음은 아세트알데히드(ALDH)가 DNA를 손상시켜 암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해 치매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

해바라기씨에는 비타민E, 셀레늄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세포를 보호하며, 햄프씨드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간세포 재생을 돕는다. 모링가는 염증억제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식물성 슈퍼푸드다.

또 양질의 단백질(두부, 생선, 달걀 등)과 적정 탄수화물 섭취는 간의 회복을 돕는다. 씩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간 해독을 촉진하고 부추는 활성 산소를 73% 억제해 간 손상을 방지한다. 올리브유는 담즙분비를 촉진해 체내독소를 배출하고 헛개나무는 숙취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하다. 모시조개는 타우린이 간세포 재생을 돕고 피로를 해소한다. 하지만 인진쑥, 녹즙 등 일부 생약제는 농축 시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술 체질은 유전자로 결정되지만, 건강

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은 알코올 분해효소(ADH)와 알데히드 분해효소(ALDH)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1단계로 알코올(에탄올)이 간에서 ADH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환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식도암·간암·유방암 등 발병률을 6배 이상 높인다.

홍조반응이 있는 사람의 식도암 위험은 소량 음주만으로도 급증한다. 이 물질은 독성이 강해 숙취와 홍조의 주범이다. 2단계로 아세트알데히드는 ALDH 효소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이 된다.

문제는 ALDH 효소의 유전적 결함에 있다. 동양인의 30~44%는 ALDH 유전자 변이로 인해 이 효소가 부족하거나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축적되며 얼굴이 빨개지고 두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서양인의 경우 ALDH 결핍비율이 1% 미만이라 홍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다. ALDH 결핍자는 "얼굴 빨개짐=경고등"으로 인식하고 절주해야 한다. '과유불급'을 명심하자.

/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자율'로 포장한 '부담'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최근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음식은 자영업자가 만들고, 소비자가 직접 수령해 가는 포장에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는 단순한 물음을 던지고 싶다. 단지 음식 예약만 중개한 플랫폼이 6.8%라는 적지 않은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심보가 옳은 것일까.

자영업자들에게 배달 플랫폼은 이미 피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필수 선택으로 자리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프라인 방문은 줄고 비대면 주문이 늘어난 데다, 1~2인 가구 증가로 외식보다는 소량·간편식 배달 수요가 확대되며 일상화됐다.

자영업자들은 당장 수수료를 내자니 마진이 줄고, 안 쓰자니 노쇼가 걱정되는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결국 고민 끝에 '일단은 포장 수수료를 내더라도 쓴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는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견어서 서비스 개선에 쓰겠다고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것은 먼 미래의 혜택이 아니

라 당장의 생존이다.

게다가 포장 주문은 배달과 달리 플랫폼의 물류나 배달망이 필요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기존 배달 중개 수수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를 부과하는 것은 독점 지위를 무기로 삼아 수수료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달 플랫폼들은 한결같이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주장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포장 주문 수수료로 플랫폼의 배를 채우는 행태는 상생과 거리가 멀다.

플랫폼이 편의를 넘어 지배가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소비자 and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공정함을 챙겨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 김상회의四季

## 염치가 없으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된다. 필자도 나름 한 갑자(甲子)를 넘긴 지 벌써 저만큼인데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그동안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종의 대민 직업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제각기 자신만의 기운을 풍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상만으로도 단번에 느껴지기도 하고 옷차림이나 태도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말 한마디 나눠보면 그 느낌이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와 말솜씨가 수려해도 그 사람의 진정한 고결함은 염치를 알고 모르는가에서 나온다. 염치(廉恥란) 무엇인가?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염치를 차린다는 것이다.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견 있는 처신을 할 줄 아는 염치는 품격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염치를 안다는 것의 스펙트럼은 넓다. 자신의 것만을 챙기느라 얼굴 두꺼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 하며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쓴다. 염치없는 것이 지나치면 물염치, 파렴치가 되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가장 듣지 말아야 할 말이나 평가가 파렴치한(破廉恥漢)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내로남불 행태들과 아전인수격 이중적 잣대로 일관하는 파렴치한들이 너무나 많다. 이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염치는 가진 자들에게만 요구되는 행동 양식은 아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커피숍 휴지를 왕창 집어 온다든지 등등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일어난다. 양심 불량인 것이다. 양심 있는 생각과 행동은 남과 내가 함께 이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염치는 자신의 양심을 드러내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염치가 살아있는 사회는 건강하다. 염치를 가버려 여기지 말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영역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8	9		3	5
					1
3		1			
		5	4	8	6
5	3	8		9	
			3		2
2					
1	9		7	5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9	2	8	2	6	7	1
2	8	6	9	1	7	9	8	2
2	7	1	8	6	9	2	9	8
7	1	2	6	2	8	8	9	9
6	2	9	1	9	8	8	2	7
9	8	8	7	2	9	2	1	6
8	2	9	9	1	7	6	8	9
1	6	7	8	8	2	9	2	9
9	9	8	2	7	6	1	8	2

2	8	9	6	8	2	1	9	
6	2	9	7	8	1	9	2	8
8	1	7	9	2	9	2	6	8
2	8	9	6	8	2	8	7	
9	8	2	1	6	9	8	7	9
1	7	2	8	9	9	6	8	2
9	9	6	8	7	2	8	2	1

# 코트라, 中 소비재박람회 참가 뷰티·식품 등 프리미엄 시장 겨냥

韓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 집중홍보  
한국관 운영... 총 45개사 참가해  
中 면세시장 진출 적극 지원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달 13일~18일까지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열린 '중국 국제 소비재박람회'에 참가해,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소비재 전문 전시회인 이번 전시회는 올해 패션·주얼리·화장품 등 일반 고급 소비재부터 슈퍼카·요트 등 초고가 럭셔리 품목까지 다양한 제품이 전시됐으며, 면세점 구매 담당자와 중국 전역의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B2B상담과 소비자 대상 B2C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관은 ▲기업 전시관 ▲프리미엄 소비재 쇼케이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상담회 ▲방향 관광 및 K-콘텐츠 홍보존 등으로 구성됐으며, 뷰티, 건강 식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우리기업 45개사가 참가했다.



'중국 국제 소비재박람회' 한국관 운영 모습. /코트라

특히 '이도면세(Offshore Duty Free) 제도 활용 바이어 상담회 부스'를 통해 참가기업이 하이난 지역 유통망과 바이어와의 연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B2B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이도면세는 하이난성 방문 후 중국 본토로 가는 내·외국인에게 면세 구매 혜택을 주는 제도로, 하이난성을 떠난 후 180일 내 온라인으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홈케어 뷰티 제품 제조기업 APR그룹은 중국 대형 면세점 운영사에 제품을 선보였고, 화장품 전문기업 미제레

레사는 유명 한국인 왕홍(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인플루언서를 의미하는 중국어)을 초청해 현장에서 라이브 판매를 진행하며 중국 젊은 소비자층과 접점을 넓혔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과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활용해, 우리 프리미엄 소비재의 중국 면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우리 소비재 기업의 대중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장애인고용공단-현대차,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등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자동차는 21일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합 직무개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화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인 현대자동차 HR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로 청정수소 만든다

환경부, 바이오가스 수소생산 지원

제주도가 후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21일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국비 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가 2023년부터 매년 2곳씩 선정해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순도 95% 이

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후 이를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제주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매일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100대가량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288억 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한전, 혁신 이끌 '에너지 신기술' 모델 발굴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개최  
우수기업 선정, 사업화 자금 지원

한국전력이 자사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우수사례와 유망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

한전은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첫 개최하고, 내달 12일까지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모델 등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전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가 후원한다.

공모는 ▲에너지신기술사업화 우수 사례 ▲유망기술 활용 BM(Business

Model) 콘테스트 2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격은 우수사례 부문은 한전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경험이 있는 기업, BM 콘테스트 부문은 창업 7년 이내 중소 또는 벤처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메일(startup@ksa.or.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를 통한 총 30개사를 대상으로 2개 부문별로 5개 우수기업을 선정한 후, 6월 중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최종 경연으로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경연 결과에 따라 산업부장관상, 한전 사장상, 한국표준협회장 및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상이 수여되고, 공모 부문에 따라 CES2026 참관, 중동지역 수출축진회 참가 지원, 사업화자금(1~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전문 컨설팅 캠프 참여 및 기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전력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전문가의 기술지원,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특전도 제공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이번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통해 유망 에너지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 신기술 사업화와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어촌공사, 농자재 110만 달러 수출 성과

해외 바이어 초청해 수출 상담회 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주 열린 '2025 상반기 K푸드+바이어초청 수출 상담회' 농산업 부문에서 110만 달러(15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수출상담회다. 공사는 농산업 부문을 맡아, 유럽·중동 등지에서 해외 구매기업 10곳을

초청했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상담을 연계하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공사는 국내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구매기업을 위한 '품목 정보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현장에서의 원활한 상담과 계약을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농자재 기업 30곳에서 996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이뤄 냈다. 또 110만 달러 상당의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김연세 기자

#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 박종필 선임

前 고용노동부 대변인  
"근로자-기업 상생 이끌 것"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박종필(57·사진) 전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제8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입 사무총장 임기는 2028년 4월 20일까지 3년이다.

박종필 선임 사무총장은 고려대 사학



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학위를, 영남대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부에서 청년고용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담당장,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4월~12월, 2023년 7월~2025

년 4월까지 두 차례 대변인을 맡았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과 협업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실현하겠다"며 "재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2일(화) 음력 : 3월 25일

수도권 날씨 16~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4/19, 동두천 15/19, 가평 14/18, 파주 14/18, 서울 16/18, 양평 15/19, 인천 14/17, 수원 16/18, 용인 16/18, 평택 15/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G20 재무장관 회의 23일 워싱턴서 개최...美 재무 첫 참석  
▲유발 하라리 "트럼프의 제로섬 사고, 궁극적으로 세계 전쟁 초래" /사진 뉴시스

▲'30시간 부활절 휴전' 종료...러·우, 휴전 위반 네 달 공방  
▲다이시바,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중국 "우리 이익 희생 대가로 미국과 거래시 반격"  
▲'신혼여행의 성지' 태국 푸껫에...쓰레기 더미 가득



백화점·패션 '울상' 가전업계 '활짝' 기후변화에 희비 나



Life

뷰티업계 가성비로 '내수공략' L2



# 청년에 기회를, 지구엔 희망을... 미래세대 위한 긍정적 변화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선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에 집중한 증권사 중 하나다. ESG를 단순한 기업 의무가 아닌 일상과 철학에서 우러나는 실천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드림' 관련 프로젝트부터,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ESG 기업 문화까지 다각도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 이사회 직속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미래세대 지원 ▲지역사회 연계 강화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 등 세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ESG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증권

### ◆미래세대의 꿈을 키워드림(Dream-up)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드림-업(Dream-up)'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드림업'은 소외계층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세대 장학 프로젝트다. 현재 4기째로 총 3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자기개발에 필요한 후원금 및 생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드림업 4기'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드림업 4기에는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립준비청년 중 심사를 통과한 총 10명이 선정됐으며, 각각 3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이석기 대표이사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 공부방 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드림이 홈케어링'을 통해 아동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도 제공한다. '드림이 홈케어링'은 지역사회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도배·장판·방충망 보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용 가구를 임직원이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미래 꿈나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교보증권의 교육 중심 사회공헌 철학은 같은 그룹사인 교보문고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 교보문고를 창립한 고 대산 신용호 선생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 교보문고의 슬로건이자 교보그룹 전반에 흐르는 가치관이다. 교보그룹은 보험, 금융, 출판이라는 각기 다른 업종을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과 '성장'을 중심으로 둔다. 교보증권 역시 금융이라는 전문성과 교보 그룹의 인문적 전통을 결합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는 ES

### 소외계층 청년 지원 '드림-업' 운영 장학생 선발, 후원금·생활지원금 전달 취약계층 아동에 쾌적한 공부방 제공

### 드림이 사회봉사단 창단, 소외이웃 도와 나눔문화 확산 '기부 키오스크' 운영 15년간 창립기념일 맞아 봉사활동도



1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왼쪽)와 송승규 드림메이커스 사무국장이 지난 2월 25일 진행된 '드림업 4기' 장학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하윤원 교보증권 사회공헌 담당자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설치를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

G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보증권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 중심의 지역사회 공헌과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ESG경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보증권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자 '드림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주기적인 사회공헌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드림이 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분기별 신청을 통해 연계복지시설을 방문해 환경개선·식사전달·물품후원 등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이다.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드림이 따뜻한 밥상'을 12년째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임직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여해 간편식, 반찬, 간식 등이 담긴 식량 키트 280개를 제작하고 드림이 희망기부 결연아동에게 전달했다.

이 밖에도 일대일 아동결연 프로그램인 '드림이 희망기부'를 운영 중에 있다. '드림이 희망기부'는 국내외 어린이 대상 매칭 그랜트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5년 현재 309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국내 281명, 해외 7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 ◆임직원과 만드는 나눔 문화

교보증권은 임직원 개인기부에도 적극적이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에는 새로운 기부트렌드를 반영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본사 로비1층에 '기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설치했다. 기부키오스크는 '소장용 태그'로 기부 이력을 기록하고 최소 3000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임직원들의 기부 참여를 손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키오스크에는 쪽방

촌 거주·결손가정·중증장애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기부를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스토리를 접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이뤄진다.

더불어 임직원의 환경 보호에 대한 마인드 배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그린레이스' 챌린지도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이 생활 속 탄소절감 행동을 하면 마일리지 적립되고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신설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꿀벌숲 조성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한다.

2010년부터는 창립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자는 의미로 창립기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일이 있는 한달 동안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김장김치 전달, 공원 밀원수 심기, 해피쿠킹, 헌혈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한다. 2024년 창립기념 봉사활동에서는 자원 재순환 프로젝트인 '나눔채방'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런칭하고 임직원들이 기부한 도서 500여권의 판매 수익을 지역 내 장학금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활용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생물다양성 증진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의샾강공원·여의도공원 생태계 보호 환경 개선 사업과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에는 임직원 30여명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여의도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진행하고 자연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와 자원재활용의 가치를 담은 업사이클링 카네이션을 제작해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교보증권은 신규 비영리조직(NPO, Non-Profit-Organization) 발굴과 협업을 확대하고 교보 관계사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7연승' 2위 한화의 거센 돌풍...고공행진 이끄는 막강 선발진 /사진 뉴시스  
▲LG, 에르난데스 일시 대체 외인으로 호주 출신 코엔 원 영입

▲'발 부상' 손흥민, 노팅엄전까지 결장 확정...회복에 집중  
▲고진영, LPGA LA챔피언십 공동 7위...윤이나 16위

▲출판시장 지난해 총영업이익 36.4% 증가 1468억원...총매출액은 소폭 감소  
▲'침대 생활' 고종의 덕수궁 서양 건물 활용법... '황궁에 선 양관'展